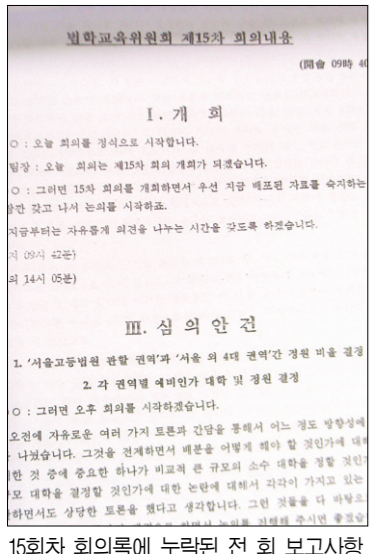


‘로스쿨 회의록’ 은폐 의혹 교과부 고의적 누락 흔적 ... 학교 강력 대응 천명



린 문서제출 명령에 대해 교과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배정했던 13·14회 회의록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대학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난달 17일 행정법원 측에 △법교위 회의록 △법교위 위원별 평가표 △법교위의 정량평가 항목 평가표 △변지 조사 결과 보고서 △법교위의 평가 총괄서 등이 재판의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문서제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 중 13·14회 회의록이 누락된 채 문서가 제출됐다.

법교위는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고 이 중 13·14회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학을 넣고 빼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중요 회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상(법학) 학장은 "12회 회의까지의 내용상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인원을 배정했던 회의로 추정되는 13·14회의 회의록이 법원 제출 자료에서 빠졌으며 15회

회의록에도 전 회(13·14회) 보고 사항 없이 심의결과만 나와 있어 어떤 기준으로 인가 대학과 정원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회의록에는 또 발원 위원들의 이름과 지워져 부분이 지워져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돼있는 점과 법교위 위원별 평가표도 이름이 삭제된 점 등으로 인해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교위 위원들이 합의해 13·14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과부 지식서비스인력과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회의라 아예 작성을 안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로스쿨 대학 선정 및 인원 배정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교과부의 해명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교위와 같은

중요한 회의라면 속기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규정했을 것"이라며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교과부의 부실한 문서제출에 대해 지난 16일 누락된 13·14회 회의록은 물론 발원 위원의 이름을 표시한 회의록을 내도록 행정법원에 추가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 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19일 교과부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상 법과대학장은 "2차 심리 때도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법교위 위원 13명을 포함해 교과부 관계자까지 모두 증인으로 불러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 대책위 최순열(국어교육) 학사부총장도 "로스쿨 비대위 등과 함께 교과부의 회의록 누락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기초가 중요해 ... 체육실(실장=신관호)과 중구건강기정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체육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24일 열렸다. 사진은 축구부 학생들이 '중구 청소년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소속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며 즐거워하는 모습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학과조정안 놓고 학교 - 학과 '평행선' 학교 "더이상 자료공개 없을 것" - 학과 "공정한 절차 거쳐야"

입학정원 조정안을 둘러싸고 학교와 관련학과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2일 만해관 B158에서는 철학과 학교 측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지만 서로의 공통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 자리에는 최순열(국어교육) 학사부총장과 철학과 유현우 학과장, 김정준(철학3) 학생회장 등 교수와 학생, 대학원생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평가기준'에 대한 대화가 주되게 오갔다. 철학과 과의 한 학생은 "5개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학문을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기초 학문을 타겟으로 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학교 측은 "과별 특성이 일부 배제될 수 있겠지만 학생

수요나 학과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본다"며 "특정과의 정원감축을 목표로 두고 진행된 계획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로스쿨 시험(LEET)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철학"이라며 "이 같은 잠재적 수요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부총장은 "입학정원 조정안은 1년마다 한 번씩 평가가 이뤄진다"며 "수요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정원 늘어나지 않겠냐"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은 "서울신문 인터뷰에 나온 '기초학문은 국립대에 서 해야한다'는 총장의 발언은 어떤 의미냐"는 것이었다. 최 부총장은 "자신의 학문을 위해 힘쓰는 구성원들에게 대신 사과드린다. 그러나 학교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표시일 뿐 실제 행정에 반영한다

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축대상 학과 구성원들은 항목별 순위가 반영된 평가 점수와 총점 등 입학정원 조정안과 관련된 내용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정원감축대상학과의 한 교수는 "입학정원 조정안의 방향은 차치하더라도, 공정한 절차는 납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학교 측은 단과대학 학장에게 입학정원 조정안의 항목별 평가순위를 공개했지만 항목별 순위가 반영된 평가 점수와 총점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교 측은 "학과별 이해관계에 따라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어 더 이상의 자료공개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예일대, 우리대학 소송에 기각신청 학교 측 "한국 특수성 무시하는 처사"

예일대가 우리대학이 명예훼손으로 예일대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코네티컷 주 법원에 기각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일대 측 변호사 스프링거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기와 횡령, 부도덕한 성적 스캔들과 부패한 정치"라며 "동국대가 주장하듯이 예일 행정자의 불법적인 잘못이 아니

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의연(영어영문학) 경영관리실장은 "기각 신청의 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예일대가 한국 내의 명성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일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예일대의 기각 신청 결과는 다음달 23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소연 교수, 환경부서 21억 지원 수질감시시스템개발 ... 최우수 평가 따라

우리대학 김소연(생명공학) 교수가 환경부(장관=이만)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제출한 '압타머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통한 고감도 신규수질평가 개발 및 수질오염 정량 검사용 압타머칩 개발' 과제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 교수는 이 과제를 통해서 바이오칩기술과 압타머 기술을 융합해 환경호르몬 등의 수질 오염물질을 ppb(parts per billion : 10억분의 1그램)단위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질감시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최우수연구 선정으로 2008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도 '수질오염 핵심마커를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 개발' 과제가 실용화 개발 기술로 선정되었다.

현재 기술의 실용화단계를 진행 중이며 3년간 2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소연 교수의 본 관련 연구 논문은 국제과제 우수연구 논문 30선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 축하만찬 오는 27일 신라호텔에서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만찬 자리가 대외협력실(실장=위태량)의 주최로 오는 2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우리학교는 이번 18대 국회의원에 총 10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이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축하 만찬자리에는 한나라당 구상찬(제교80총)의원, 김태원(연영75총)의원, 김욱이(행정학 석사)의원, 이정현(정외85총)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법학과 교수)의원 등 모두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내 인사로는 영배 이사장과 오영교 총장 등이 참석한다.

졸업Pass제 모의토의 접수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국제화추진단(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이 졸업 Pass제 모의토의 대체 강좌 접수를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이번 모의 토의 대체 강좌를 Pass할 경우 영어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강좌의 대상자는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영어 Pass제 미통과자 수료자로서 영어 공인인증시험 및 외국어교육센터 Pass제 모의토의 시험 3회 이상 응시 경험이 있어야 한다. TOEIC LC와 RC, Reading Voca등의 강좌가 개설되며 강좌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7월 5일까지이다.

SKT, 2억원 상당 기자재 기증 정보통신공학과에 ... 오늘 11시반 기증식

SK텔레콤(대표이사=김신배)이 우리대학 정보통신공학과(학과장=양기주)에 2억 2천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다.

이 기자재는 라우터와 스위치로 주로 근거리 통신망, 랜을 연결하고 컨트롤하는 장치다.

SK텔레콤은 내부 기자재를 새로운 기자재로 바꾸게 되면서 예전 기자재를 우리대학에 기증하게

했다.

기증식은 오늘 11시 30분에 공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학장, 사업개발본부장, 정보관리실장, SK텔레콤 대표(전무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행사는 감사패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이 기기들은 정보통신공학과 전공 실습실(Q202) 및 자유 실습실(P204)에 설치된다.

중도 별관·만해관 열람실 CCTV 설치 도난사고 예방차원 ... 학생들 긍정적 반응

중앙도서관 별관 열람실과 만해관 열람실에 감시카메라가 지난 20일 설치됐다.

이는 열람실과 사물함에 도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학교 홈페이지에 잇따르는데 따른 것이다. 총괄지원팀은 2대는 이전설치하고, 6대는 신규로 증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홈페이지에는 도난사고에 대한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되었다. 중앙도서관은 이에 따라 총괄지원팀과의 협의를 통해 감시카메라 증설을 비롯해 이전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별관열람실의 △지하 3층 노트북 열람실=1대 △지하 3층 사물함=2대 △지하 4층 사물함=1대 등이다.

만해관 열람실의 경우에는 △1

층 열람실=2대가 설치되고 △1층 사물함=2대가 이전 설치됐다. 이전 설치에 경우 기존 카메라가 사물함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 각도와 선명도를 조절한 것이다.

이번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정민(공과대1)군은 "사물함을 보면서 도난 사고에 대한 우려를 많이 느꼈다"며 "CCTV가 생겨 잠시 자리를 비울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학술정보서비스팀측은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일반열람실을 제외하고 사물함과 노트북 열람실에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수)
ysher21@dongguk.edu

제239차 이사회 내일 개최 작년 회계 결산 승인 건 등

제239차 이사회(이사장=영배스님)가 내일(27일) 열린다.

2007학년도 회계 결산을 승인하는 '결산 이사회'의 성격을 띠는 이번 이사회는 경주캠퍼스 민자유치 기숙사 입찰공고에 대한 승인 건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국제화추진단(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은 오는 29일까지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경어연단 단기어학연수 파견단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9월 중순 중화권으로 교환학생 파견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교환학생으로 파견하기 전, 학생들의 어학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기회이다.

총대신문사 終値 ▲ 85.2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00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모집분야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그래픽기자, 웹미디어기자
접수기간 5월 26일(월) ~ 6월 4일(수) 오후 5시 까지, 6시 면접
원시개봉 대학본관 1층 제일은행 옆 동대신문사 편집국
www.dgupress.com에서 접수 가능

문의 본사 홈페이지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전화: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지면안내

3면 학술
문화와 생명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운회와 대운화가 지향해야할 길을 고명섭(불교학)교수가 말한다.

4면 기획
개교 102주년을 맞은 우리학교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기획연재를 준비했다.
기획연재 - ③우수학생·우수교수 유치방안

5면 문화기획
우리학교 예술극장을 리모델링해 전문공연장으로 변모시킨다. 앞으로 우리학교 공연예술 산업발전의 크게 기여하고, 이번만이 아니라 수익창출효과도 기대된다.

학내상업홍보, 철저한 관리 필요

상업협찬 운영내역 불투명 지적

요즘 대학 캠퍼스 안에서 빈번하게 진행되는 상업적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 교내 허가 및 협찬 비용 투명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축제기간에도 △이니스프리 △참이슬 △Show △Apple사 등이 학내에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대학 내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학교 측은 한 관계자는 "다른 곳보다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니 오히려 기업과 학생 모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대학이 상업적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학내에서 브랜드 홍보활동을 한 '에이든'의 한

관계자는 "업체의 상업홍보는 먼저 학생기구에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교 측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활동비는 물품으로 대신 지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업브랜드 홍보부스의 설치허가는 학생서비스팀이 담당하고 있다. 학생서비스팀에서는 우선 구두로 상품의 상업성과 개요를 확인한 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기업체의 홍보행위를 허가한다. 그러나 허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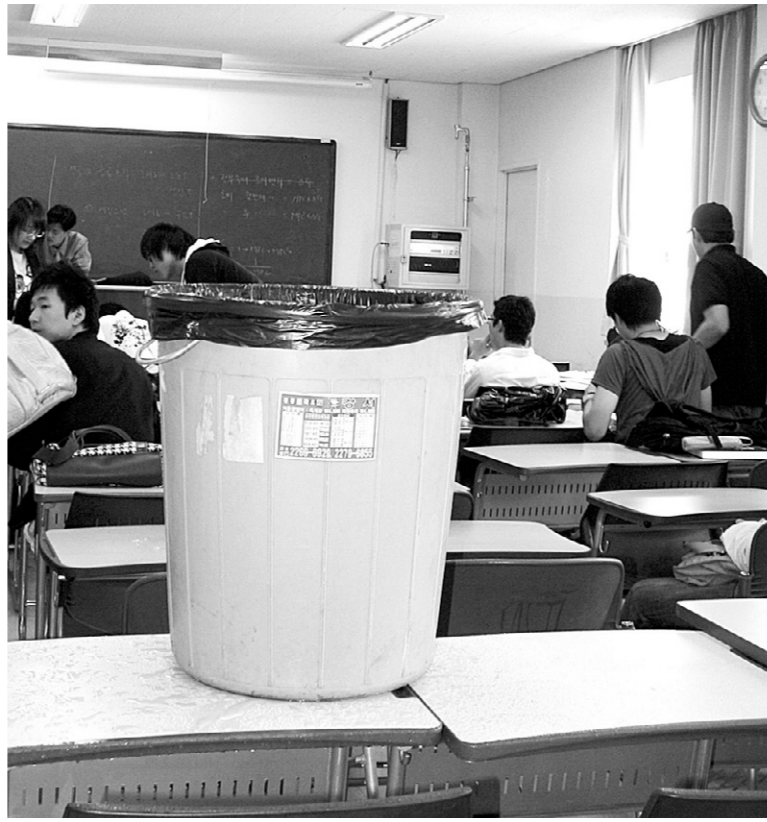
기업이 캠퍼스 내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협찬비용은 중앙자치기구나 해당 단과대가 관리한다. 문제는 그 중앙자치기구나 단과대 학생회가 직접 관리하는 협찬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투

명하다는 것이다.

우리학교는 현재 각 학생기구가 협찬을 구하고 학생서비스팀에서 허가를 받은 뒤 학생기구 자체적으로 그 자금의 운영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문제는 협찬 상품이나 금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찬 횟수나 대상, 금액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예·결산이 투명하지 않으면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한화운(회계3) 양은 "학내 공간의 일부를 내어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만큼, 협찬비용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그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

jongseo0722@dongguk.edu



강의실 소나기 ... 동국대 M410 강의실 천장에서 지난 22일 강의 시간에 물이 섰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대 학사운영실은 "검토해봐야겠다"지만 에어콘 배수관에서 물이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시간에 천장에서 쏟아진 물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에 피해를 받아야 했다.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화제의 동국인

영어완전정복 '절거운 영어'에 맡겨라



주 3회 아침마다 '절거운(절거운) 영어'를 외치는 남자가 있다.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 이민호(영문4) 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편견을 보기 좋게 깨 버린 이 군.

미래 영어 강사를 꿈꾸는 이민호 군은 경험을 다져보고자 무료영어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그에게는 영어가 단순한 언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도구나 마찬가지로.

"작년 7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월, 수, 금 아침 7시 30분부터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3명밖에 안 되던 인원이 이제는 15명이나 되었어요"라며 자랑스레 웃어 보인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할 텐데 힘들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나를 믿고 멀리서 와주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시작한 강의인데,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것은 정말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이 군.

이 강의를 듣는 이라면 누구

나 마음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는 대답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강의인데 혹시라도 아쉬워하지는 않을까 싶었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걸요. 오히려 학생들이 아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에요"하며 웃는다. 하나 주고 둘을 받는다고 느끼는 그이기에 아침 7시 30분의 소름을 멈출 수 없다.

"이 강의는 체계 있어 에너지 교류를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말을 하고, 서로 인연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소통'이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과의 교류를 인연이라는 멋진 말로 표현해가며 의미를 부여하는 그이기에 더 이상의 멋진 스승은 없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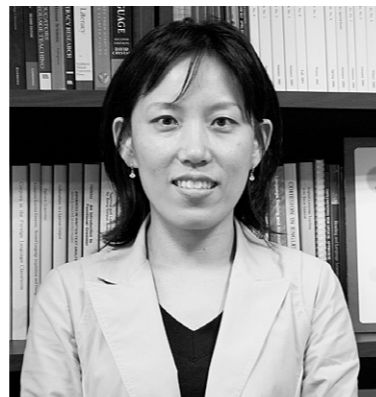
우리 모두 이 따뜻한 스승과 인연을 맺어가는 것은 어렵까. 단지 열정만 가지고 참ச케 준다면, 세상에 공짜는 있다!

<촬영>
lan@dongguk.edu

영어캠프 주관 윤현숙 교수 인터뷰

"영어캠프로 영어 실력 쑥!"

기초교양 3학점 · 영어 pass제 인정 혜택도 주어져



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생각한다. 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비용에 비해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한다. 이번 영어캠프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어학연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캠프는 대학영어에 대한 강의도 하기로 했다.

- 영어캠프를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 영어로 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이번 영어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기초교양 3학점 · 졸업인증 영어PASS제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영어캠프에서 쌓을 실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외국인 강사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거나, 캠프에 참여한 학생끼리 스터디 그룹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English Clinic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

wondergirls@dongguk.edu

영어캠프를 어떻게 진행되는가.
= 일반적인 영어캠프와 마찬가지로 캠프 내에선 24시간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학생들을 6단계로 나눠 수준별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의 Speaking · Listening · Writing · Reading 4단계를 통합한 형태로 진행되며, 오전에는 생활영어 중심으로, 오후에는 대학영어 중심으로 강의를 한다.

3주 동안 해외 어학연수에 다녀온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다소 바쁜 일정을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과제가 많고 일일 · 주간 · 파이널 테스트로 실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특히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영어캠프에 지원하기 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학로에서

잃어버린 신뢰

지난 2월 교무팀(팀장=강형석)은 강의평가결과를 공개해 학내의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강의평가 공개를 지켜본 학생들은 더욱 충실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월 교무팀이 학생들에게 실시했던 강의평가 공개 찬성여부 설문조사에서 94%이상이 찬성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했다.

또한 이 설문조사 결과는 교수 측과 마찰을 빚던 학교 측이 더욱 힘을 실어 일을 추진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이어 교무팀은 강의평가 제도 보완에 나서 강의평가의 횟수를 늘리고, 무항을 보장하는 등의 작업을 벌였다. 교수들 또한 강의평가 공개여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강의준비에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는 듯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학기 강의평가 참여율을 보면 어딘가 의문점이 든다. 지난 4월 실시한 1차 강의평가는 48.5%의 참여율을, 지난 16일 종료된 2차 강의평가는 59%의 참여율을 보였다. 1·2차 모두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처음 제시한 날짜보다 5일가량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2차 강의평가의 경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장학금 신청에 평가횟수를 반영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강의평가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는 학생들은 70%가 넘는 반면 직접 강의평가를 하는 학생들은 50%도 되지 않는다는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강의평가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공개하기엔 신뢰성이 떨어지고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제안한 발전방향을 학교 측이 받아들이고, 학생 위주의 학사행정 및 교육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참여해 그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의 몫이다. 저조한 강의평가 참여율이 나타나듯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실천에 소극적이라면 학생들에 대한 신뢰도는 날로 떨어질 것이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 학생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강의평가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회 선거나 자치활동, 동아리 참여 등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지성인다운 책임의식이 아쉽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5·18 전야제 참여에 뜻 기려

동아리 '아라가기' 주최로 17·18 양일간 광주방문

사과대 근현대사 기행 동아리인 '아라가기(기장은·경제)가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참가한 학생들은 △5·18국립묘지 △5·18 구 묘지 망월동묘지 △도청 △금남로 △5·18자유공원 △'화려한 휴가' 영화세트장 등을 방문해 그 당시 상황을 체험하고 기념했다.

또한 실제 광주 시민군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돼 많은 학생들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유지은(경제2) 양은 "광주에 방문하기 전에는 현실과 역사, 반민주적인 일들에 대한 무관심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행을 통해 모든 일에 스스로 그릇된 일인가를 따져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들이 끝까지 계엄군에게 저항했던 도정 앞의 금남로에서

는 28주년 5·18을 기념한 전야제 행사가 열렸다. 주먹밥 나눠주기, 당시 민주화 항쟁 상황 재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시민은 "5·18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며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야제에서는 5·18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기보다는 현 정부의 최고기 수립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감정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웠다는 평이 많았다.

이에 대해 강민태(사과대1) 군은 "광우병과 같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5·18의 광주에서는 '광주 정신'을 잊지않고 기리는게 맞다"며 아쉬워 했다. <신>

leeshin@dongguk.edu



Rock One(낙원) ... 중앙동아리인 'Fearless Dawn'의 주관으로 23일 제12회 락페스티벌 'Rock One' 행사가 열렸다. 사람의 열매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는 이수라, 가사밴드, WON 등이 참여했다. 이정훈 사진기자 dgupress@dongguk.edu

현 로스쿨 서명자 수 6만여명

2차 서명운동 마감 ... 3차는 8월 31일까지

로스쿨 유치 백만 불자 서명운동에 6만 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대 학사운영실(실장=류변성)에 따르면 5월 21일자로 집계된 현황(△오픈라인=11,755명 △사찰현황(△오픈라인)=47,922명으로 총 59,677명이 서명한 것이다. 이는 지난 18일까지 예정됐던 2차 서명운동이 마감된 상태에서도 목표였던 100만명에는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법대 측은 "현 정부의

소고기 수입 파동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로스쿨 인가 문제가 가려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3차 로스쿨 유치 백만 불자 서명운동은 로스쿨 선정대학을 최종결정하는 본인이 시점인 8월 31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류변성 실장은 "현재 인터넷 서명인 수는 하루에 1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사찰에서 받고 있는 서명자의 수도 6천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사물함 신청 27일까지 인터넷으로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학)은 만해관과 중앙도서관 별관 열람실의 사물함 신청을 오는 27일 오후 4시30분까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사물함은 690개로 만해관 전자식과 다이얼식, 별관열람실 지하 3·4층의 다이얼식으로 나뉜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자리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1만5천원이다. 사용료는 사물함 신청기간에 제일 은행 지정계좌에 납입하면 된다.

외국인학생 페스티벌 열려 '이랑' 주관, 이승기 등 출연

'외국인 학생을 위한 페스티벌'이 지난 21일 분관 중앙당에서 열렸다. 학생서비스팀(팀장=이원준)이 주최하고 외국인학생도우미모임 '이랑'이 주관한 이번행사는 다양한 공연들로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과 하나되는 콘서트'를 모토로 흥겨운 리듬 속에서 한·중·일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국가 학생들까지도 한 데 어우러지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는 △이승기 △한·중·일 퓨전 국악그룹 '울려' △신인 가수 주니호 △중앙 합창동아리 AJAX △동국대&속명여대 연합댄스동아리 블리즈 △백상운단 등이 찬조 출연했다.

임용시험 합격전략 오늘(26일) 설명회 개최

사범대(학장=김해숙·국어교육)가 주관하는 교원임용시험 합격 전략 설명회가 오늘(26일) 학림관 J111호에서 오후 6시에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임용시험 기본 준비전략'이라는 주제로 바뀐 임용시험 제도 및 가산점 안내, 합격에 위한 기본수험전략에 대해 최석환 씨가 강의한다. 또한 교육학 준비 전략과 관련,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교육학 준비전략과 전공속의 교육학 대비전략에 대해서 탁영진 교수가 강의하며, 전공 준비전략에 대한 전공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효율적 전공 준비 전략에 대해 각 전공별 강사진들이 강의한다.

사범대는 2009학년도 교원임용 시험 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학생들이 변경체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또한 높은 수준이다.

전통법 이론 집대성 8권 김재문 교수 도서관 기증

김재문(법학) 교수가 지난 6일 중앙도서관에 한국전통법연구 시리즈 5권과 전통법 중 민법이론 시리즈 3권을 기증했다. 김 교수는 약 30여년의 연구 끝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통법문화 이론을 집대성했다.

회전문대

○...우리학교는 지금 '너도 나도 버리자' 캠페인으로 정신이 없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기존의 로고 가 새겨진 물건들은 모두 폐기처분이 내려졌다고.

못 쓰게 된 고물도 아닌데, 버리기보다는 재활용할 생각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UI의 참의미는 Useless Identity?

학생 수난 시대

○...별관 열람실에서는 공부와의 싸움 말고도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는데.

이유인즉 열람실에서 에어콘을 지나치게 세게 틀어 학생들이 서늘함과 싸워야한다고.

중간 중간에 열람실 내 온도를 체크해 온도를 적당히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공부와의 싸움, 추위와의 싸움,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생들?

홍보가 기가 막혀

○...우리학교에는 비밀의 장소가 있다는데...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여러 외국어교육프로그램들을 시행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오는 학생만 받을 생각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이에 회전문대자 알 "약은 약사에게, 외국어는 외국어교육센터에 가!!!"

기초 교양 실증

○...우리학교 학생들은 논리적인 의견 전달이 부족하다던데.

무슨 말이고 하니 평소 행정처에 전화하는 학생들의 전화 태도 예절이 부족하다고.

다짜고짜 자신의 용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논리정연히 자신의 요구를 말하는 게 더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애인한테 하는 것의 반의반이라도 해보시길"

문화와 생명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운하

자연의 순리 거스르는 인간의 오만

대운하가 초래할 생명·문화적 손실 복구 어려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들은 살려는 의지가 있다. 물 속에서 약동하는 물고기처럼 허공 속을 나는 새처럼 숨 쉬는 것들은 모두 살고자 한다. 한 생명체가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쉬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현상은 없다. 이처럼 숨을 마시고 내뿜는 행위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호흡'과 '의식'과 'चेन' 세 가지의 화합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불교는 수행의 과보로 성취한 보신의 입장과 달리 진리의 몸인 법신의 입장에서는 유정과 무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때문에 담장과 벽과 기와와 돌에 대해서도 그 변화 가능성을 열어둬으로써 언젠가는 성불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신의 입장에 서게 되면 문화제도 생명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게 한다.

문화제는 문화 활동의 소산이자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을 일컫는다. 때문에 문화재 속에는 그 시대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투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재,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문화재의 7할 이상은 우리 민족의 꿈과 이상과 정신을 머금고 있는 불교 문화재로 집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불교는 민족문화의 보고로 인정받고 있다.

현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건설안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워낙은 '경부운하'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기간에 직면하여 '호남운하'와 '충청운하'에다가 '북한'까지 수로를 잇는 운하에 대한 구상까지 덧붙여지면서 '한반도 대운하'라는 명칭으로 확장되었다.

운하에 휩쓸릴 생명들

주목할 것은 강가에 자리 잡은 절과 탑 등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가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석존의 연기사상은 존재를 실체가 아니라 관계로 파악하여 생명과 생명체들의 존귀함을 갈파해 주고 있다. 해서 불교계가 회한하는 것 역시 산과 강에 함께 살고 있는 생명의 중요성을 먼저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 주변에 산재해 있는 생명과 생명체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과 산이 모든 문명의 터전이었듯이 우리나라의 강과 산은 우리 민족 문화의 모체가 된다. 우리 조상들의 숨결과 역사가 숨 쉬는 문화재 역시 이러한 한반도의 자연 생태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 때문에 문화재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열'과 '성' 및 '혼'과 '열'이 배어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생명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 나라와 스승, 부모와 자식의 가치를 계량할 수 없는 것처럼 산과 강 유역의 생명과 문화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강은 인간의 심연을 연상하는 공간이며 산은 인간의 사색을 지속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산과 강을 오고 가며 호모 사피엔스의 지혜를 빚어낼 수 있었다.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빚어낸 문화재는 이 땅의 물과 흙과 돌과 나무 등으로 빚어낸 새로운 생명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대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빛을 발하는 생명체인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이 땅 사람들의 정신사가 투영된 생명 그 자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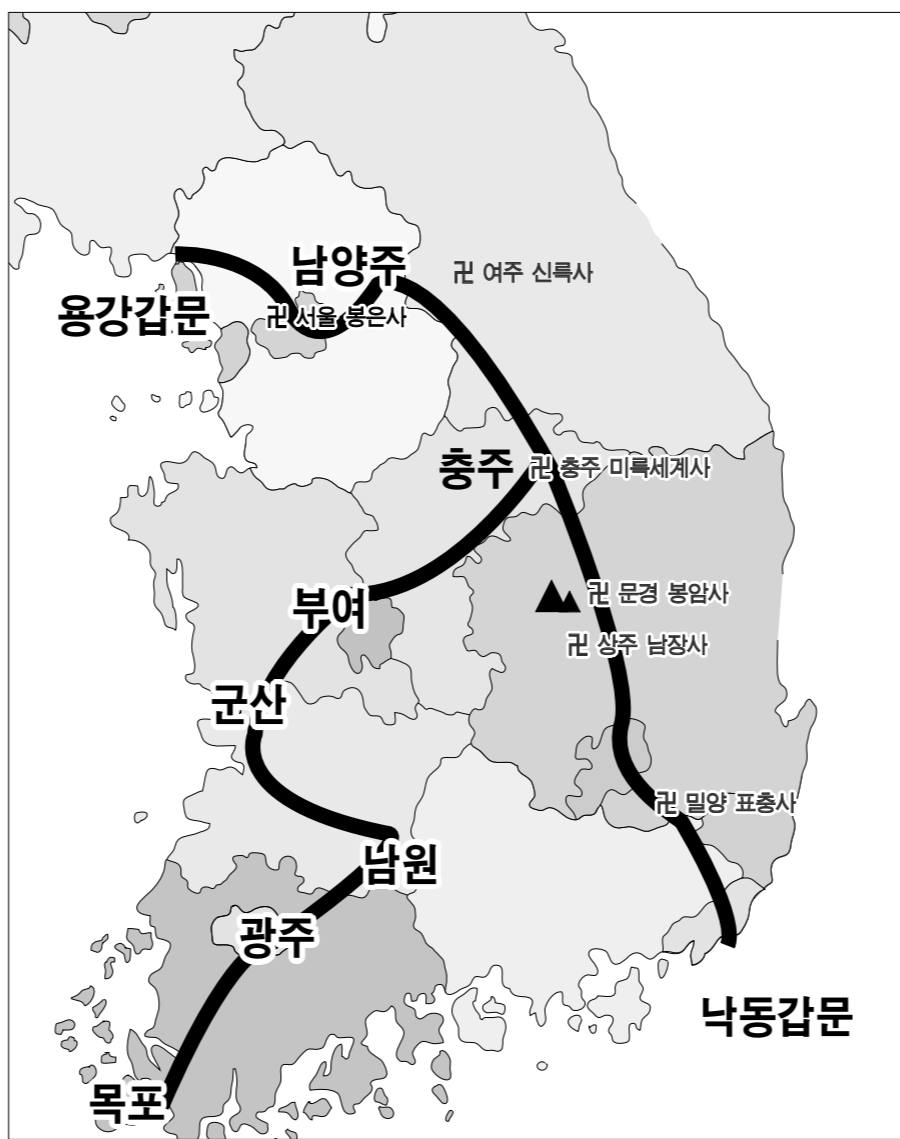
'자타카'의 '사신'(捨身)설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냥꾼 앞에서 쫓겨온 '비둘기'와 숨겨준 '사람'의 가치는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토끼이야기'나 '지비왕 이야기'에서처럼 불교 경전은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보살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가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운하 정책이 지향할 길

현 정부는 청계천을 덮고 있던 뚜껑을 열고 물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운하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당은 표를 의식해 4월 9일 총선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은 예기치 않았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직면하여 운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호흡 조절을 하며 운하안을 가다듬고 있다. 나아가 대운하 건설안의 국민적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4대 강 정비'와 '수질 개선' 및 '벚길 복원'으로 '대운하'의 이름까지 바꾸었다.

조정안에서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조령 터널과 팔당 상수원 구간을 뒤로 미루되, 자치단체가 원하고 반대 여론이 적은 낙동강(문경-부산), 영산강(목포-광주), 경인운하는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하여 준설과 하상정비, 수질개선, 하천 주변 환경 개선 등 사업에 '4대 강 수질 보전 특별 예산'(2015년까지 15조~2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운하 터널 건설 및 관광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은 당초 계획대로 민자(民資)로 유치해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원래 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서남부를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4대 강 유역별로 나눈다는 것만 '물길을 잇는다'는 기본안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4대 강 유역별로 이어놓는 물길을 하나로 잇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강과 산 등지에 자리해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불교계가 운하 건설안에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운하 건설 지역의 산과 강 유역에 자리해 있는 생명체들의 인정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여타의 생명체들과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지니고 있는 문화 생명체들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생명과 생명체들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체가 없으면 문화도 없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불린다. 문화는 어제의 죽은 고목이 아니라 지금도 새싹을 틔우는 유기체이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현재의 문화적 가치와 미래의 문화적 비전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때문에 해당 문화재가 한 분야의 정신사를 고스란히 은축해 오고 있다는 의미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문화재라는 흔적과 기록을 통해 과거를 재구하고 현재를 영위하며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의 과학 기술로도 12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경주 토함산 석불사(석굴암)의 원형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적 존재이자 의식 내적 존재이며 마음의 시간인 불교의 시간관은 이러한 사실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내 의식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인식과 미래의 예지는 내가 점을 찍는 순간 가능되기 때문이다.

불교계가 단지 산과 강 유역에 흩어져 있는 절과 탑 등을 지키기 위해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강과 산 주변에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살려는 의지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 정화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생태 환경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화 능력에 의해 맑은 물과 공기와 바람 등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을 잇는 경기 운하 건설 지역인 서울의 봉은사와 여주의 신륵사 및 충주의 미륵세계사, 낙동강을 잇는 경북 운하 지역은 상주 남장사와 문경의 봉암사 및 밀양 표충사, 금강을 잇는 충청 운하와 영산강을 잇는 호남 운하 주변의 사찰과 불탑들의 보호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 주변에 사는 생명체들의 존중과 건강이다. 이 지역 불교 문화재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이들 생명체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지평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영섭 불교대학 불교학부 교수

인터뷰

조선법문화이론 집대성한 김재문(법학과) 교수

전통법에서 민주주의를 찾다



"우수한 법전과 법문화를 지닌 우리의 법은 잘 알지 못하고, 정작 로마법과 같이 외국의 법만 교육 하는 한국 대학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김재문 교수는 30여년간 연구한 조선의 법문화 이론을 '한국전통법 연구 시리즈'와 '전통법이론 시리즈' 8권으로 답했다. "책을 찾으러 안 가본 곳이 없어요"라며 연구 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사료들을 조사하면서 연구비용의 부족으로 집과 아끼던 연구서적을 팔기도 했다"며 어려운 연구과정을 회상했다. 그가 전통법 연구에 발을 들인 계기는 석사학위 논문을 쓰던 중 주관지(영조 때 재판 규정집)에서 '하늘이 사람을 만들어 낼 때 언제 귀천을 두었는가'라는 구절을 읽고 부터다.

사람들은 흔히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왕권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 사회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법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법은 현대의 어떠한 법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민주적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그 이유를 "신분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분계층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철저하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 부자라도 1년 이상의 징역 시 보석요청을 할 수 없는 법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법의 바탕에는 애민정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특히

약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 전통법에는, 입법과정에서 신중성과 민주성, 담보제도·채권법·가족법·소송법 등의 민법분야에서도 오늘날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제도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처럼 민주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지닌 전통법을 가진 우리나라지만, 현재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입법·행정에 대해 김 교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조선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법을 시행할 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안한 공직자의 마을에서 먼저 시행하자는 이론도 있었다"며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대단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전통법을 통해 선조의 바른 입법정신을 본받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승진된 재임용논문 심사위원, 교수 채용 논문 심사위원을 맡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외국 대학에서 우리 전통법 강의를 하고 싶다는 김재문 교수.

"여생을 마칠 때까지 전통법에 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노 교수 바람처럼 선조들의 민주적인 법 이론이 새 입법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홍) wondergirls@dongguk.edu

과학과 미술

'미술관에 간 화학자' 전향림 저자 강연회

자연과학연구원과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과학과 예술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은 함께하고 서로 도와주는 창조적인 작업임을 이해함으로써 교양역량을 강화함을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책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1. 행사명 : 제11회 <저자와의 대화>
2. 일 시 : 2008. 5. 28(수) 오후 4:00~6:00
3. 장 소 : 중앙도서관 AV실(2층)
4. 강연자 : <미술관에 간 화학자>의 저자 전향림교수
현 홍익대학교 화학시스템공학과 교수
5. 내 용 : 강연 및 사인회
6. 인 원 : 80명
7. 참가신청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결원시에만 현장접수 합니다.
8. 주 최 : 자연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9. 후 원 : 램타워스
10. 기타
* <작가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이 채택된 학생과 정시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책을 나눠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연구원 · 중앙도서관

과학 Talk Talk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광우병은 소의 프리온 질환으로 구분되며, 공통적인 증세는 전염성 해면뇌증을 동반하는 신경계 장애와 높은 치사율이다. 문제는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프리온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리온은 단백질로서 그 3차원 구조에 따라 정상형과 변형된 질병형으로 나뉜다. 정상 PrPc 유전자로부터만 들어지는 정상 프리온은 인체에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실제로 인간 프리온 질환의 대표격인 크로이츠펠트-야콥 질환(CJD) 중 10~15% 정도는 PrPc 유전자에 이상 이 있는 선천적인 질환이다. CJD 질환자 중 약 80% 가량은 sCJD(신백질)로 구분된다. 이 경우 뇌에서 정상 프리온이 변형 프리온으로 바뀌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작은 아직 명확치 않다. 최근 문제가 된 '인간광우병'은 vCJD(변종)을 일컫는 것으로, 프리온 질환에 감염된 육류의 섭취 또는 수혈 과정에서 인체로 도입된 변형 프리온이 정상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변형 프리온으로 바꿔놓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영국의 경우 전체 CJD의 약 5% 정도가 vCJD에 해당하고, 기타 국가에서의 발병율은 매우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2002년까지 질환자의 평균 사망연령이 sCJD는 68세,

소와 사람이 표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vCJD 질환자는 28세였던 사실은 두 유형이 서로 다른 생물학적 경로를 가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 최초로 주목받은 인간 프리온 질병은 식인 풍습을 가진 파푸아뉴기니의 원주민에게서 나타났던 쿠루병이다.

미국 국립보건원 가이뒤썬 박사는 이 질병이 CJD와 유사하며, 단순한 유전병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라고 발표했다. 이 공로로 가이뒤썬은 197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지만, 이후 미 캘리포니아대 프루시너 박사에 의해 이러한 유형의 질병원이 바이러스가 아닌 변형 프리온 단백질인 것으로 수정되었다. 프루시너의 발견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생각되던 유전체에 의한 감염 원리를 넘어서 단백질에 의한 감염 기작을 제시한 것으로, 그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7년 노벨상을 수상한다. 이후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제까지 규명된 변형 프리온의 성질은 고온, 고압, 단백질 분해효소에 저항성을 가지며, 정상 프리온과 그 아미노산 서열에 차이가 없어 체내의 면역체계도 이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정도이다.

영국에서의 초기 광우병 발생이 동물 사체로 만든 사료를 초식동물에게 먹인 것이 원인이었고, 쿠루병이 인육 풍습에서 기인했듯이,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 행위에 대한 대가는 작지 않은 듯싶다. 쇠고기 수입 문제로 광우병이 이슈화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광우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국민적 관심을 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정석 생명과학대 바이오헬스부 교수

기획연재 - 조벽 석좌교수에게 듣는다 ③ 우수학생 · 우수교수 유치방안

신임교수, 미국 대학은 ‘보물’ 우리 나라는 ‘후배’ 대우

교수선발 심층면접 · 수험생 캠퍼스 투어 적극 활용 ... 벤치마킹 필요

글 쓰는 순서

1. 강의평가제도 발전방안
2. 비합리적인 재정 확보방안
3. 우수학생 · 우수교수 유치방안

대학들마다 우수학생 · 우수교수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제 대학 경쟁력에서 강의실, 연구실, 학내 편의시설 등 대학들이 가진 인프라는 큰 차이가 없다.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대학의 미래가 달려질 수 있다.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 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대학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벽 우리학교 석좌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조언을 구했다.

면접시간 30분 vs 1박 2일

조벽 교수는 신임 교수 임용에 대해 “교수를 비싼 장비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비유임을 먼저 밝혀 둔다. 대학이 수익 원대의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고심할 것이다. 무료 장비를 후원 받을 때도 만약 수익 원대의 유지비가 소요된다면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유독 수습직 원대의 ‘유지비’가 드는 교수를 임용할 때에는 고차 간단한 서류 심사와 30분의 면접으로 결정한다”고 말하며 현재 국내 대학들의 임용심사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교수 면접은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진행된다고 한다. 오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2박 3일 씩 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1박2일간의 일정이다. 예외적으로 일주일이 함께 생활하며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 첫날 오후, 학과 교수 서너 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은 시작된다.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화과장과 조찬을 함께 한 후에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간다. 하루를 매 15분, 30분 단위로 쪼개서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학장, 처장 등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을 차례로 만난다.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룹으로 만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만나고 나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헛갈리기도 한다. 조벽 교수는 “준비가 될 뻔 상태에서, 질문에 대해 미리 깊게 생각한 바 없이 인기응변식으로 답하다 보면 일구어언이 되기 십상이다. 순간을 잘 넘겨도 나중에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된다. 면접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때, 일구어언이 밝혀지면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탈락되기 때문이다”라며 다양한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때문에 면접에 임하는 예비 교수는 평소 실력과 평소 생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날 하루는 한 사람의 예비 교수를 완전히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것이. 현재 우리학교에서 신임교수를 선발할 때는 서류평가와 함께 대학본부와의 면접, 해당학과 교수 및 학장과의 면접이 이뤄진다. 여기에 후보자의 논문, 경력, 영어강의 능력 등이 추가로 평가된다. 신입교수 채용 시 면접시간은 후보자의 강의능력 테스트를 포함해 30분 정도다. 이는 국내 다른 대학과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미국 대학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신임 교수에게 최대한의 예의 · 혜택

면접을 하는 동안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이 후보자를 대하는 태도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깎듯이 대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후보자는 다른 대학에서도 원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고자세로 나올 수 없다. 후배 교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학과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발한다는 마음가짐이다.

조 교수는 “명문대에서는 후보자를 줄 세워 점수를 매기지 않으며 무조건 최고의 능력과 경험을 지닌 자를 선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신임교수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가를 미리 정하고 적임자를 찾는다”고 말했다.

미국대학에서는 신임교수가 임용되면 학과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신임교수가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한다. 강의책임시수를 줄여주고, 강좌도 제일 먼저 선택하게끔 해줘서 자신 있거나 수업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뿐만 아니라 임용된 신임교수에게는 연구실도 우선으로 배정해주고 학회 참가 비용 지원, 과학재단 및 기업체 방문 시 출장비 지급, 학과나 대학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우선적으로 보장해 준다. 조벽 교수는 “교수의 강의 습관을 첫 2년 만에 굳어버린다고 한다. 따라서 신임교수가 처음부터 강의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좋은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학교의 모 학과 교수는 “신임교수 시절은 어느 때 보다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다. 학생 수가 많은 강이나 선배교수들이 수업하기 꺼려하는 시간의 강의를 신임교수 차지다. 강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 있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교수들의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며 신임교수 시절의 경험을 말했다.

배려 후에는 가시적인 성과 요구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하는 것처럼 충분한 배려와 혜택으로 연구와 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준다면, 신임교수들이 느끼는 성공의 부담 또한 커진다. 실패할 경우 핑계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신임교수는 매해 평가를 받는다. 첫 해는 적응 기간으로 주고 2년이 지나면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첫 4년 안에는 반드시 가

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연구비를 따오지 못하거나 강의 평가가 나쁘면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는다. 6년이 끝날 무렵에는 테뉴어(정년보장) 심사를 받게 된다.

“신임교수의 싸움은 외롭고 길다. 실적이 점수로 정량화되지 않으며 승진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 신임교수는 첫 7년 내내 새벽부터 자정이 넘도록 일에 매달린다. 교수와 대학이 이렇게 서로 공을 들이기 때문에 교수가 심사에 탈락할 경우 교수 개인의 실패인 동시에 대학 리더십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놓고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평가’라는 시스템을 통해 고스란히 교수의 능력에 돌리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다”라고 조벽 교수는 말한다. 명문대일수록 평가 잭대가 높지만 그만큼 교수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험생 가족단위 투어 ‘큰 효과’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수 만큼이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에서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우리나라 보다 더 일찍 시작된다.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미국교육평가원)로부터 고학생들의 성적자료를 사서 대학이 원하는 학생들에게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캠퍼스투어를 제안한다.

미국에서는 1년 내내 캠퍼스 투어가 이뤄진다. 캠퍼스 투어는 반나절 코스와 하루 코스로 나뉘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루 코스의 경우 15명~2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설명, 대형 강의의 참관, 기숙사 방문, 일대일 질의응답 등으로 일정이 짜여 있다. 특히 질의응답시간에는 수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미국 대학들이 운영하는 캠퍼스 투어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단위로 초청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선택할 때는 학생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상의한 뒤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 투어를 통해 학생의 부모도 학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학생과 함께 이야기 한다. 우수한 학생일수록 가족단위로 초청은 필수적이다. 고3이 되기 전 방학기간이 캠퍼스 투어의 피크다. 이 기간에 미국 학부모들은 며칠씩 휴가를 내 여러 대학들을 투어하기도 한다. 우수학생을 기르는 부모들의 또 다른 교육열인 것이다.

조벽 교수가 말하는 가장 인상 깊은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최상위권의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비행기 표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까지 학생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초대한다. 2박 3일간 학교 기숙사에서 머무르게 하며 학교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체능계에서 최고의 학생을 스카우트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우리학교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우리학교 캠퍼스 투어에 참여한 학생들. 사진제공=우리학교 홍보대사 '동감'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 캠퍼스 투어는 2시간 정도 진행되며 학교 홍보대사 ‘동감’ 학생들이 투어를 담당한다. 20분~30분 정도 학교 홍보동영상을 감상하며 학교 소개를 하고,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학내 곳곳을 함께 돌아본다. 또 몇 명씩 조를 나눠 학생들이 관심학과에 대한 질문을 하면 동감 학생들이 대답해주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4월과 5월에 특히 캠퍼스 투어를 원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투어를 담당하는 도우미학생들의 시험일정과 겹칠 때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투어 도우미 학생들=학교이미지

캠퍼스 투어를 할 때는 투어를 담당하는 학생도 우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캠퍼스 투어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도우미의 태도를 보고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우미가 보여 주는 친절함, 학교에 대한 자긍심 등이 예비 대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미시간 공과대학의 경우, 캠퍼스 투어 도우미 학생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Story line’을 공유한다고 한다. 효과적인 설명방법과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끊임없는 피드백으로 더욱 알찬 투어 프로그램을 고민한다.

충분한 입학홍보물 자료를 제공한 다음, 캠퍼스 투어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학교의 분위기를 느끼며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우리학교에 입학하도록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이 맞는 여러 대학을 두고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캠퍼스 투어를 대학선택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학교의 분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미국의 대학들은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에 많은 공을 들인다”고 조벽 교수는 설명한다. 미

국의 언론들이 캠퍼스 투어를 두고 ‘결정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학금도 우수학생 유치위한 방안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이 선택하는 방법에는 ‘장학금 혜택’과 ‘학비 보조’도 있다. 미국 명문대학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 대학들의 잇따른 학비감면 조치는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는 올해부터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 우수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가구수입이 18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의 자녀에게도 학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예일대도 이에 맞서 올 학자금 지원액을 8천 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7% 늘리기로 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2008학년도 부터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만해핵심인재 장학금 신설했다. 정식 합격자 중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의 수능 성적이 모두 1등급이고 탐구영역에서 3과목 모두 2등급 이내인 자에게 4년간 전액장학금과 매월 소정의 학업장려금이 지원된다.

조벽 교수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학비감면은 대학을 결정하는 데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10년 후, 20년 후 대학의 미래는 학생들과 교수에게 달려 있다. 때문에 우수학생과 우수교수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우수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이다. 대학들마다 ‘우수한’의 의미부터 명확히 하고 대학의 비전에 부합하는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미혜 기자
lmissionaral@dongguk.edu

법학 적성시험 대비 계절학기 강좌개설 안내

1. 개설강좌(총 4강좌, 강좌별 2학점)

가. 논증적 사고특강 (Special Lecture for Argumentative Thinking) - LEET 등 언어이해영역 : 홍성훈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구회 창립회원, 동국대 논리학개론, 일반논리학, 과학적사고와 철학적사고 등 강의, 경기대 비판적글쓰기, 독서지도사 전문강사, 출제 및 검수위원, 논술지도사 체제위원 등)

나. 수리 및 논리퍼즐 특강(Special Lecture for Mathematical & Logical Puzzle) - LEET 등 추리논증영역 : 윤정익교수(서울대 항공우주학과 박사, 수리논증전문가 등)

다. 비판적 사고 연습(Critical Thinking Practice) - LEET 등 논술 및 기초논리학영역 : 이진남교수(미국 텍사스대 박사, 동덕여대 교수, 비판적사고와 논술연구회 부회장 등)

라. 논술 연습(Argumentative Essay Practice) - LEET 등 논술 및 기초논리학영역 : 홍성훈교수(독일 카셀대 박사, 경기대 비판적글쓰기, 동국대 논리학개론, 비판이론 강의 등)

2. 개설기간 : 2008.06.23(월)~07.16(수) / 여름계절학기 기간

3. 수업요일 : 주 4일 수업(화, 화, 목, 금), 15일간

4. 수업시간

구분	오후1	오후2	오후3
수업시간	13:00~14:50 (5~6.5교시)	15:00~16:50 (7~8.5교시)	17:00~18:50 (9~10.5교시)
해당강좌	논증적 사고특강	수리 및 논리퍼즐 특강	비판적 사고 연습 논술 연습
담당교수	홍성훈 교수	윤정익 교수	이진남교수 홍성훈 교수

5. 수강지역 : 제한 없음

6. 수강료 : 과목당 25만원

7. 강좌개설 기준 인원 : 강좌별 15명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

8. 추가 접수 : 수강료 납부 이후부터는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6월 18일(수)까지** 추가접수함

9. 수강신청 방법
▶ 재학생 및 일반인 : 문과대학 학사운영실로 문의 (02-2260-3756)

10. 기타사항
가. 이수구분 : 전공 또는 자유선택
나. 성적평가 : A~F 등급평가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담당 길홍보 02-2260-3756, 이메일 gilhm@dongguk.edu)로 문의바랍니다.

문과대학

2008년 English Summer Camp 안내

여름방학 3주 집중 영어캠프 / 각 반 당 15명 인원으로 소수정예 24시간 원어민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 / 학점인정 및 졸업Pass제 통과

영어를 관심 있는, 그리고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실시하는 English Summer Camp는 학습 형태의 3주 단기 영어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해외어학연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프로그램입니다. 6개의 레벨에 따른 수준별 영어 학습을 통하여 24시간 영어로만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전 영역의 통합과정과 보다 전문적인 content-based 과목이나 비즈니스 영어, 고급 영어 소설 읽기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영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다양한 클럽 활동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의 반 배경과 원어민 강사 팀업제의 실시, TA의 생활지도, 일별, 주별 학습관리 등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효과적이고 철저한 학습관리에 민전을 기할 것입니다.

<English Summer Camp 특징>
* 레벨에 따른 수준별 학습
* 각 반 당 15명 인원으로 소수정예
* 3주간의 집중 영어교육
* 학습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외국인 선생님과 교우 교류
* Speaking/Listening/Reading/Writing의 전 영역 통합 과정

<교육과정>
* 기 간 : 6월 30일(월) ~ 7월 19일(토) 3주
* 장 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수강료 : 재학생 990,000원(숙식비, 교재비 포함) / 다교생 및 일반인 1,100,000원(숙식비, 교재비 포함)

<등록절차>
* **접수 기간 : 5월 13일 ~ 5월 31일**
* 홈페이지 직접 입력 및 방문접수 가능 (방문접수용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 예차금 100,000원(5월 30일까지) 납부 후 잔액 납부

<라벨리스트>
* 레벨리스트 : 6월 4일(화)하루 1층 시간은 추후 공지

* 영어인터뷰에 따라 1~6단계로 레벨 분류, 해당 레벨에 따라 편성

<학점인정>
* 교과목명 : 집중영어연수(English Summer Camp) 가, 소속대학별 학문기초 외국어과목 최저학점 미충족시 학문기초교양 3학점으로 인정
나, 학문기초 외국어과목 최저학점 충족시는 자유선택 3학점으로 인정

<예치금 및 수강료 납부>
* 수강료 납부 : 온라인 송금 (6월 12일까지)
신한은행 140-007-481766 (예금주 : 동국대학교)
* 납부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취소 및 환불규정>
* 접수기간 5월31일까지 내 취소는 100% 환불
* 분반 시험 이후부터 개강 1주일전까지 (6월 5일 ~ 6월 13일) 취소는 80% 환불
* 6월 13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2260-3468 ~ 3470

외국 어 교육 센터

2008년 1학기 원어민특강 프로그램

1. 강의기간 : 3차 ~ 5월 26일 ~ 6월 20일

2. 수업시간 : 주 3일 월/수/금 매일 1시간씩 (4주간, 총 12시간) / Writing은 화목 6주간

3. 접수장소 : 방문접수(해학관 1층 사무실) 또는 이메일 접수 clinic@dongguk.edu

4. 문의전화 : 2260-3468, 3470, 3474

5. 강의실 : 추후 공고

6. 수강료 : 각 과목 90,000원

* 접수 후 계좌이체 (신안은행 140-006-754830 : 예금주 동국대학교)

7. 시간표

시간	매주 월/수/금 4주간			
8:00~9:00	회화 1단계	회화 3단계	회화 5단계	Debate & Discussion
9:00~10:00	회화 2단계	회화 4단계	회화 6단계	Debate & Discussion
1:00~2:00	Debate & Discussion	Biz English & Interview		
6:00~7:00	회화 1단계	회화 3단계	회화 5단계	Debate & Discussion
7:00~8:00	회화 2단계	회화 4단계	회화 6단계	Exchange students

8. 과목 소개

- 회화 : 1~6단계에 따른 수준별 회화 위주 수업 (교재 World Link)
- Debate & Discussion :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 및 토의 위주 수업
- Biz English & Interview : 비즈니스 영어 및 영어 면접 대비 수업
- 예비교환학생반 : 미주권 교환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대상 원어민 수업

외국 어 교육 센터

예술극장 리모델링 ... 전문공연장 구축

이해랑 연극재단 20억 기부, 연극학과 교육·실습에 청신호



이해랑 연극재단의 이방주 이사장



우리학교 예술극장

우리학교 예술극장이 연극 및 소극장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전문공연장으로 거듭났다.

이해랑 연극재단이 예술극장 리모델링에 20억을 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우리대학 연극학과 교수를 역임한 이해랑 선생의 장남 이방주 이해랑 재단 이사장은 "아버지께서는 항상 연극인들이 필요하고 공연하는 것을 좋아하셨다"며 선생의 유지를 이은 이번 기부에 의미를 부여했다.

고(故) 이해랑 선생은 '순수연극', '리얼리즘 연극'을 추구했던 배우로 출발해 연출가로 대성한 연극인이다. 1947년부터 국립극단의 전신인 극예술협회(신협)에 끌렸고 1960~70년대에는 이동극장을 만들어 전국을 돌며 연극을 보급했다. 우리학교 연극학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던 선생은 학생들이 열악한 극장에서 힘들게 연습하고 공연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과거 우리대학 연극과는 대학본관에 있던 소극장에서 실습공연을 하곤 했다. 90년대 중반 학술관에 예

술극장이 생기면서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공연전문극장은 아니었다. 특히 기존의 예술극장은 무대가 비좁고 공연에 필수적인 백 스테이지를 가지지 못해 공연을 할 때 관객 앞부분을 뜯어내고 무대를 확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상업공연이나 전문공연을 하기엔 아쉬운 점이 많았고, 학내 행사나 연극학과 학생들의 실습극장으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관계자들은 이해랑 재단의 이번 기부에 예술극장이 가진 고민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거목속의 단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모델링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백스텝터지, 무대 확장 △객석구조변경 △극장 로비 시설 공사 △노후 조명, 음향 기자재 교체 △이해랑의 저서·연출 대본·공연 포스터 등 전시 공간 마련 등이다.

8월까지 설계와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오는 9월이면 변화된 예술극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 정관개관을 앞두고는 개관기념작품으로 이해랑 선생의 '사실주의' 경향이 잘 드러나는 희곡 '세자매' (이윤택 교수 연출),

'갈매기' (신영섭 교수 연출) 등이 공연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개관이후에는 학생들에게 극장 중심의 현장실습 환경이 조성되고 연극학부 공연이 가능해져 보다 내실있는 실습과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부 극단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및 대관도 활발해져 명실상부한 연극 전문 극장으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협력실 변승재 팀원은 "이번 리모델링으로 예술극장의 시설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뒤 "연극학과와 실습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대외 공연 유치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극학과는 이번 공연장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예술 산업발전과 더불어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극전문가를 배출이라는 보다 큰 목표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신영섭(연극학) 교수는 "연극전문극장의 확립을 시작으로 실기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된 대학원 실기 교육을 통한 고급 전문 연극인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극장의 리모델링은 200석 내외의 중간 규모 공연장이 부족한 국내의 공연현장에서 연극전문극장으로서의 역할을 특출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극장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리모델링된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국내 다양한

극단의 공연을 유치한다면 교육시설에 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학교만의 것이 아니다. 연극학과를 가진 다른 대학들의 경우를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서강대는 이미 우리나라 대학 최초의 공연전문극장인 '메리홀'을 오픈해 40여년 간 운영해오고 있다. 또 중앙대는 400여석 규모의 '아트센터'와 '루이스 홀', 그리고 100여석 규모의 소극장을 운영중이다. 또 동덕여대는 400여석 규모의 '공연예술센터'를, 한양대는 100석 규모의 연극전문 소극장 '한양 테라토리 씨어터'를 각각 연극의 중심지 대학로에서 운영중이다. 이같은 대학들의 공연장 운영은 연극학과 등의 교육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모교 출신의 예술가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극의 대중화를 통해 대학들은 꾸준히 상업공연을 선보인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공연 및 영상 문화 콘텐츠 분야는 창작과 실습 그리고 미래의 공연산업 현장의 연계성을 고려해볼 때 전문공연장의 확보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이해랑 재단의 기부는 그런 의미에서 뜻깊다. 교수를 역임한 선생의 유지를 받는다는 면에서, 또 이를 통해 후학들의 미래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면에서 학교와 학생, 그리고 연극학과의 기쁨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예술극장의 성공적인 변신으로 우리대학 연극인들이 연극계의 확실한 주축이 되길 기대해 본다.



그림을 남보다 조금 더 잘 그린다는 사실이 여행 중에 내게 많은 재미를 가져다 줬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림으로써 마음을 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충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림으로 속속 그려 보이기도 하고 감사의 뜻으로 얼굴 한 장 그려서 내밀면 금세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새벽녘 고폼(Gompa)에서 행해지는 불교 의식을 보러 갔다가 불교 의식이 없다는 말에 뜻밖에도 시간이 지나 경내를 여기저기 스키지켰다. 같이 이동하며 다니는 여행이기 때문에 가만 한가로이 앉아 풍경을 그림 세가 하였는데 이런 시간을 놓칠 수가 없다.

나는 풍경보다 주로 남자 아이들의 얼굴을 많이 그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자 아이들은 뺨을 잘 날라다니지 않아서 볼 기회가 적고, 수줍음이 많아 그림을 그릴라 치면 뒤로 '속'하고 틀러서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얼굴은 이 곳 삶의 풍경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아이의 얼굴이 행복할 때 이 곳의 삶에도 행복과 여유가 있다 느껴지고, 아이의 얼굴이 고단할 때 이 곳 삶의 고단함을 엿보게 된다.

제에 쓰일 버터 양초를 준비하는 동자승 차림과 새벽녘 젊은 엄마의 손을 잡고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맑은 소년과 티베트 난민센터에 살고 있는 한참 공놀이를 하고 놀다 잠시 숨 돌리며 유리 구슬을 손에 쥐고 노는 장난감 가득한 아이, 불전함에 기대어 포옹포옹한 눈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를 보던 동자승... 아이들의 표정에 푸른 새벽이 서려 있다.

김상남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지리교육과 96출

최민희의 **살아 숨쉬는 영국 연극기**

영국이 유럽에 있다는 것은 여행연수 목적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내게 큰 요소로 작용했다. 언제든 주변 유럽 국가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거운 유럽여행 책도 굳이 챙겨가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쉽지 않았다.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평소 가고 싶었던 곳을 알차게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한 사전준비와 유럽 친구들의 도움이었다.

첫 해외 여행지는 독일국인 아일랜드 공화국이었다. 학교가 쉬는 부활절 연휴에 맞춰 함께 공부하던 일본인, 태국인 친구들과 여행을 했다. 연휴기간에 맞춘 여행이라 일찍부터 숙소나 교통수단에 많은 신

경을 썼다. 친하게 지내던 학교 선생님이 체스터에서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Dublin)'까지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기차+페리' 왕복 교통편을 알려주었다. 숙소 또한 일찍 찾아 전화예약한 덕분에 시내 중심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머물 수 있었다.

두 번째 해외여행은 체코, 독일, 프랑스를 일본인 친구와 함께 둘러본 것이었다. 3개월간 공부했던 영어능력시험을 치른 직후 떠난 2주간의 여행이었다. 발도장 찍기 식 관광이 싫어, 이동경로와 경비를 고려해 꼭 가고 싶었던 세 나라만 선택해 약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 교통은 유럽 내 저가항공과 유로라인 버스, 기차를 이용했다. 숙소는 주로 유럽친구의 집, 유스호스

텔, 한인민박 등이었다.

유럽 내 저가항공은 때로 기차보다 훨씬 저렴하다. 특히 여행 한 두 달 전부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다보면 특가항공이 생기는데, 세금을 포함해도 5만원 미만 가격일 때가 종종 있다. 또한 유럽대륙 내에서 유로라인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렴하면서도 경치 감상에 좋다.

이 여행에서 특히 좋았던 점은 친구들이 있는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었다. 가는 곳 곳에서 현지인들의 삶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훨씬 관광상품화 된 체코의 수도 '프라하(Prague)'에서 체코인들의 실생활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이 때 영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체코인 친구는 우리를 자신의 단골 레스토랑

으로 인도해 체코 전통 음식을 추천해주었다. 그 음식에는 관광객도, 바가지 가격도 없었다. 식사 후엔 그들만이 아는 장소에서 가장 멋진 프라하의 야경을 보여주었다. 관광객에게는 없는, 현지인들밖에 모르는 프라하의 골목골목을 다니며 체코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이 후,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현지인들과 함께한 덕분에 여행 그 이상의 '살'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여행에서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서로를 자국에 초대하는 이메일을 나눈다. 덕분에, 두어 명의 친구들이 올 여름과 겨울에 한국에 온다고 한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외국 친구들에게 진짜 대한민국을 보고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최민희 (사과대 신봉4)

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2008학년도 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장학명 (장학금액): 우수장학 (총액 30%)
-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우수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별함.
-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별함.
- 보존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 1. 2008-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4학년은 12학점),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재학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2.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은 자는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은 예외)
- 3. 2008-2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 신청기간: 2008. 5. 16(금) ~ 5. 30(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my-page/우수장학신청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면 on-line 상으로 제출이 완료 됨
- 평가기준: 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대학 학사운영실에 문의바람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 on-line 신청
 - 사회봉사인증서
 -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증빙서류를 학생경력개발원 사회봉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자동 접수 처리 됨.
 -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됨.
 - 사회봉사경력력은 졸업 시 까지 계속 인정됨.
 -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 처리됨
- 2008-2학기부터 변경사항
 - 미등록 휴학생의 장학금은 복학 시 등록금에서 감면하여 지급 함 (등록금면 장학에 한 함)
 - 장학금을 받은 기등록 휴학생이 복학 시 이중 장학수혜대상이 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음
 - 2008-1학기 2차부터 강의평가 시행여부를 장학금 신청시 반영함. (반영정도는 지도교수의 기준에 의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 장학금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2008 학계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를 2006, 2007학년도에 이어 2008학년도 하계 HRDP 취업캠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캠프명: 2008년 하계 재학생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 목적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자신감 및 리더십 함양 교육
 - 입사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체험을 통한 재학생 취업 성공 및 기본 역량 강화
 - 교육 참가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의 장 마련
- 모집대상: 재학생 전학년(인원초과시 3,4학년 우선배정) * 선발인원의 2배수까지 선착순 접수
- 모집기간: 2008. 5. 30(금) ~ 6. 10(화)
- 신청장소: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 제출서류: HRDP 취업캠프 참가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 신청(접수시) 취업캠프 자기소개서,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발자 명단 공고: 2008. 6. 13(금)이전에 홈페이지 게재
- 캠프(교육) 내용:
 - 교육형태: 합숙교육(3박4일)
 -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회수	일 자	인원	비고
하계방학기간	9기	2008. 6. 24(화) ~ 6. 27(금)	54명	
	10기	2008. 7. 1(화) ~ 7. 4(금)	54명	
	11기	2008. 7. 8(화) ~ 7. 11(금)	54명	
계			162명	

다. 교육장소: 청호인재개발원(경기도 화성 소재)
라. 교육주관: 집코리아
마. 일일 주요 프로그램

구분	교육명	주요 교육내용
1일차	개인역량강화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간관계 증진 - 커뮤니케이션 기법 -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프라젠테이션 - 성공을 이끌어내는 멘토링 스킬
2일차	자기관리 및 리더십 강화	- 비전 설정 및 목표수립 - 효과적인 시간관리 및 목표관리 기법 - 셀프 리더십, 팀 리더십 - 팀빌딩 및 팀워크 강화의 시간
3일차	실전 취업스킬 향상(I)	- 경력개발을 위한 직무 및 커리어 탐색 - 구체적인 취업전략 수립(취업 로드맵) - 인사지원서 작성법 및 컨설팅(인터뷰) - 성공면접 비법
4일차	실전 취업스킬 향상(II)	- 유행병 면접 Role Play 1 (면접의 이해) - 유행병 면접 Role Play 2 (면접 시뮬레이션) - 기업 인사담당자 실전 모의면접

11. 기타사항: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유니폼 제공 및 수료증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센터로 문의바람(문의전화: 2260-3058, 3055, 3056)

2008학년도 순계 명철순례 참가자 모집

가재 떠나재 산시의 생활로!!! 숨기쁘게 달려온 한학기 생활을 복색서 무량수전 배움길 기쁨에 기대서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순례일자: 2008. 5. 30(금) 16:00 ~ 5. 31(토) 1박 2일
- 순례시찰: 경북 영주시 부석사안동 하회마을 관광 포함
- 참가대상 및 인원: 재학생 중 90명(선착순 접수)
- 참가비: 일금 일만원(10,000)환불 불가
- 신청자 접수기간: 2008. 5. 21(수) ~ 5. 28(수)
-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학생서비스팀(본관 3층 : 교내 3043)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2008년 5월 30일(금)	16:00	학교에서 출발	장학금 및
	19:00	학교에서 출발	신청서 제출
	20:30		부석사 도착
	20:30 ~ 21:00		방배침, 정리
	21:00 ~ 22:00		일제의 말 차가소개
2008년 5월 31일(토)	22:00	취침 또는 침구(108매)	
	03:00 ~ 03:30	기상 및 세면	사물총 환조
	03:30 ~ 05:00	아침예배, 점심, 108매 사물총 환조	
	05:00 ~ 06:00	공역	
	06:00 ~ 07:00	아침 공양	사물총 환조
	07:00 ~ 07:30	방배침	
	07:30 ~ 08:00	휴식	
	08:00 ~ 09:00	주지스님 법어	사물총 환조
	09:00 ~ 9:30	회 향(부석사 출발)	
	09:30 ~ 13:30	회향마을 관광, 사시공양	
13:30 ~ 17:00	이름 (학교, 도록)		

학사지원본부

교원 연수 프로그램 안내

- 연수기간 및 프로그램

과정명	기수	기간 및 시간	연수인원
통합 교과로 본 삶쓰기 눈속 교육	제1기	2008. 8. 4 ~ 8. 6. (매일 13:00 ~ 18:00, 1일 5시간, 3일간)	40명
건강을 위한 사물총식과 웰빙식 생활	제1기	2008. 7. 28 ~ 7. 30. (매일 09:30 ~ 16:30, 1일 6시간, 3일간)	30명
- 연수 총별: 직무연수(15시간, 성적산출 안함)
- 연수 장소: 서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학림관
- 연수 대상: 전교 초·중등 교원
- 연수 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통합 교과로 본 삶쓰기 눈속 교육: 32,500원/명
 - 건강을 위한 사물총식과 웰빙식 생활: 50,000원/명
- 추후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edu.dongguk.edu에 공지될 예정이며 관련된 문신 사항은 이메일(luseung@hanmail.net) 또는 전화(2260-3112)로 문의 요망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예비졸업상담 시행 안내

2008학년도부터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졸업 상담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이수를 돕고자 합니다. 3학년 학생은 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생: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 상담기간: 2008년 5월 19일(월) ~ 5월 30일(금) - 10일
- 상담시간: 17:00 ~ 18:30
- 상담장소: 이과대학 학정실 또는 학사운영실
- 상담 신청방법
 - 이과대학 홈페이지(http://science.dongguk.edu) F과대학 3학년 재학생 예비졸업상담 시행,에 학생들이 가능한 날짜에 신청
 - 1일 7명~10명 신청 다. 학과별 그룹 상담신청 가능
- 현처제 4학년 2학기에 예비졸업상담을 하게 되면 졸업 이수 학점에 차용이 생겼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따라서 3학년에서 예비졸업상담을 시행하여 정규학기 졸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과대학학사운영실(2260-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대학

달하나 천강에



방현수
이화대학
수학과 교수

현대대학 시스템의 효시는 서기1088년에 개교한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을 필두로 1160년에 프랑스의 파리 대학, 1167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40년 후에 세운 캠브리지 대학이다. 이때 학부에서는 신학, 철학, 법학, 의학, 그리고 교양학부(Faculty of Arts)가 있었는데 이곳

에서는 Trivium 과목으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 Quadrivium 과목으로 산수, 기하, 천문학, 음악을 배웠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학과 역사는 대학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그 기간도 900년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수학의 역사는 인류의 문화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기하학의 발전이 없었으면 수레바퀴의 발명도 늦어졌을 거고 고대 이집트 문명도 찬란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알키메데스 등 수학자가 없는 그리스 문명은 어떠할까? 11세기 무렵에는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지방의 과학문명과 수학이 세계최고 수준이었으므로 1145년에 Chester는 페르시아의 수학자겸 천문학자이며 점성술의 대가인 Al Khwarizimi의 대수학 책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유럽에 소개한다. 이것

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암흑시대인 유럽에 새로운 수학을 수입하여 배우고 발전함으로써 현대과학문명의 탄생을 자극한 대 사건이다. 그 후 16~17세기에는 갈릴레오, 뉴턴, 라이프니츠 등에 의해 과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수학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기에 현대과학문명의 시발인 산업혁명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중 하나는 뉴턴, 라이프니츠와 동시대에 일본에서도 다카카즈 세키라는 수학자가 미적분학은 물론 행렬식의 계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이 유럽국가나 미국과 같은 수준의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일반인들은 수학을 수(number)의 학문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정수론은 수학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mathematics 은

어원에 의하면 배움(learning), 공부(studying), 그리고 과학(science)이라고 되어 있다. 수학은 계산을 주로 하는 학문이 라기보다는 사고와 상상을 통해 수수께끼를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학문이다. 수학의 탐구대상과 응용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세기에서 현재까지 전자공학, computer 등 비약적 발전은 배경이 되는 수학이 준비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Chaos이론, 암호학, 금융수학 수리생물학 등등이 21세기에는 새로운 과학의 탄생을 예고한다.

대학의 발전이 국가나 문화의 발전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세계대학의 순위표와 수학과의 순위표가 거의 일치하는 것도 반론에 대한 답 중 하나이다. 나무에 주는 비료와 같이 수학은 눈에 띄는 역할은 하지 않지만 과학의 결실을 가져오게 하므로 세계의 모든 대학들은 수학과를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

동학은 시골벽적

대학축제의 상업화를 지양하자

5월 14일 대학에서 맞는 첫 대동제가 시작됐다. 축하행사가 없는 관계로 중앙행사가 없어서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단과대 차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다른 단과대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래도 역시 축제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즈음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시작하는 이 대동제에 자주 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스폰서'라는 이름하에 학교 구내에서 벌어지는 기업홍보 활동들이다.

내가 아직 1학년인데다가 주머니 사정이 그다지 풍요롭지 못하다. 때문에 고등학교 때처럼 축제에 깊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모 소 주최사가 우리학교에서 소주 브랜드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동제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대 축제의 경우에도 중독성 있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한 이동통신회사의 판촉행사가 있었다. 예년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는 우리학교의 축제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학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 '대학 축제의 상업화'라는 말이 피부로 와 닿던 경험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단 기업들이 홍보활동에 앞서 대동제 주최 측에 스폰서 자격으로 상당한 재정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다 풍성한 축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 자체 내에서 준비한 축제 프로그램과 상품 구입에 있어서 특별한 할인 또는 증정품 같은 행사가 진행될 때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순수한 대학 축제문화를 변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제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손으로 준비되고 그 준비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나가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축제의 주체인데 상업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한다면 대학 축제는 오직 기업의 상품시장, 판촉장으로, 우리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의 소비주체로 전락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축제에 상업적인 면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 축제의 순수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도 좋은 축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박진성 (사범대 역교1)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늘

바야흐로 5월이다. 축제의 달에 걸맞게 우리 학교도 요 며칠간 각종 행사로 시끌벅적 하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과 같은 여러 기념일들로 학생들 모두가 들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찬찬히 학교를 둘러보면 곳곳에서 쓸쓸함이 묻어나온다. 축하행사가 부재한 우리의 전통 축제, 목격대 동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긴 하였지만 그 전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성대하고 화려한 축제가 무조건 축제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축제의 참의미가 학생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축제는 그들만의 놀이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이 화려한 5월 속에서, 학교 측의 입학정원 조정안에 따른 해당 학과들의 분노는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 본다.

이번 동대신문을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 재정 구축을 위한 학교 측의 계획과 노력에 대한 보도이다. 이를 보면서 학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물론,

우리 학교가 재정적으로나 다방면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마땅히 실행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교육의 장'이라는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학교가 덩치만 불리려는 욕심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학생은 동국대학교라는 기업의 고객으로 전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기획연재와 여론·칼럼 란에 실린 기부금 모집에 관한 기사를 통해 학교측이 재정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다. 바로 우리가 동국대학교의 미래의 기부자라는 것을.

신문이 객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윤리적 사명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객관적인 보도에 집중하다보면 알려져야 할 것들이 희석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대표 매체로서 동대신문이 좀 더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길 바란다.

정다희
(문과대 영문3·매체비평연구회)

보리수

'금강경'과 대운하

이번 학기 대학원 수업 중에 학생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고 있다. 늘 읽고 들으며, 수없이 말해지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하지만, 새로 깊이 들여다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우쳐지는 것이 적지 않다.

이른바 '구류중생(九類衆生)'에 대한 부분 역시 그렇다. '금강경'의 주제는 모든 중생들을 다 열반에 이르게 하라는 것인데, 그 중생들을 아홉 부류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류중생이라 한다. 한문 번역본과 범본을 함께 읽으면서 번역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를 적지 않게 파악하게 되었다. 구류중생에 대한 부분을 거칠지만 범본에서 옮겨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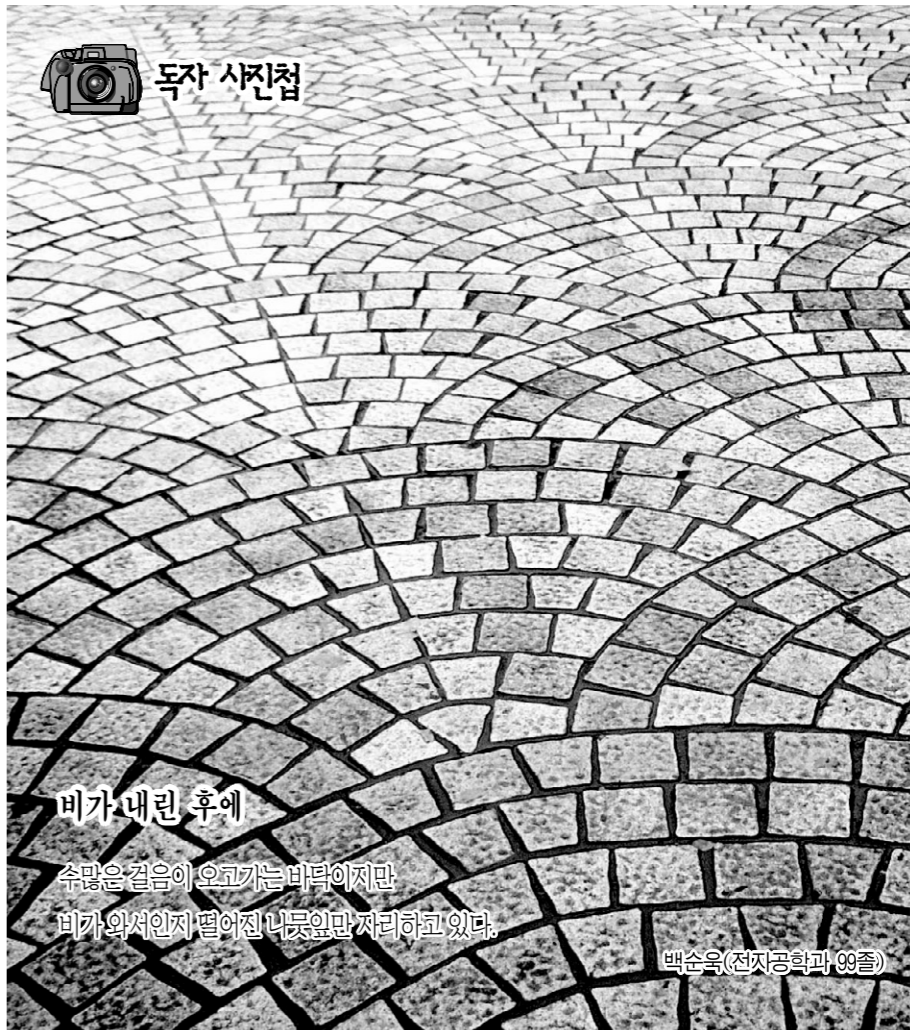
"수보리여, 모든 중생들은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에 의해서 거두어 들어진다. 혹은 알로 태어나는 것들이며, 혹은 태로 태어나는 것들이고, 혹은 습기로 태어나는 것들이며, 혹은 스스로 변화한 것들이고, 혹은 형색을 가진 것들이며, 혹은 형색을 갖지 않은 것들이고, 혹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 혹은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며, 혹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닌 것들이며, 내지 어떠한 가상(假想)된 중생의 세계가 더 가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세계의 중생들은 다 거두어 들어지게 된다.)"

사실 범본에 비추어 본 결과 한문 번역본에서는 범본의 "내지 어떠한 가상된 중생의 세계가 더 가상된다"고 하더라도 '에 해당하는 부분이 번역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번역본에서는 구류중생이라 해서 아홉 부류의 중생들만을 헤아렸지만, 실제로는 아홉 부류의 존재들(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범류에서 생생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더 넓게 고려하였음을 알게 된 것이다. 범류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구류중생은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 가상할 수 있는 세계나 그 세계의 생명들까지도 다 중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생이 곧 인간으로 치환될 수 없다는 점은 범류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보니, 왜 스님들이 대운하가 예정되어 있는 강을 걸으면서 생태계의 훼손가능성을 집착하면서 반대성명을 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스님들이 아니라면, 범류가 아니라면 인간이 아닌 생명들과 생명도 아닌 존재들을 누가 대변하겠는가. 누가 저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대신 말해줄 것인가.

김호성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교수



독자 사진첩

비가 내린 후에

추위는 걷음이 오고가는 바람이 제만
비가 와서인지 떨어질 나뭇잎만 저리하고 있다.

백순옥 (전지공학과 99졸)

2008년 국문·문창 새내기 백일장

지난달 26일 우리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새내기 백일장 열렸다. 우리신문에서는 산문과 운문의 장원수상작을 소개한다.

산문장원

봄, 천둥

한유미 (예술대 문창1)

늦은 밤이다. 나는 눈을 뜬다. 흑백 사진 같은 부유한 어둠속으로 남편의 빈 베개가 보인다. 손을 뻗어 남편의 베개를 만져본다. 밤의 한기를 머금은 남편의 베개는 차디차다.

문 밖으로 기척이 느껴진다. 나는 서둘러 눈을 감는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한껏 숨 죽인 발걸음 소리가 뒤를 잇는다.

나는 두 장의 눈꺼풀이 만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남편의 움직임을 뒤쫓는다. 이불을 들추고 남편의 몸이 조심스레 들어온다. 남편은 매일 밤 어딜 가서 무얼 하는 것일까. 눈을 뜬다. 등 돌린 남편의 몸이 보인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남편의 굵은 등. 숨을 내쉬 때마다 들쭉이는 남편의 어깨를 외락 움직여주고 싶다.

자명종 시계의 카랑카랑한 비명소리가 작은 방을 채운다. 갑는 시곗바늘 하고 있던 눈을 뜬다. 햇살이 방안 가득 들어와 가닥가닥 하얀 거미줄을 치고 있다. 눈이 부시다. 자명종 시계를 끄고 남편의 몸을 흔든다. 남편은 작게 신음 소리만 낼 뿐 꿈쩍도 안한다. 남편을 남겨두고 몸을 일으킨다.

자그마한 방 안에 위치한 옷장으로 향한다. 문을 열자 녹록한 옷 내음이 훤히 코를 찌른다. 어젯밤 남편이 입고 나간, 어둠 속에서 어스프레 보였던 옷을 뒤진다. 주머니 속에서 두둑한 현찰 더미가 잡힌다. 반대편 주머니를 뒤진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 손에 한 움큼 쥐고 꺼낸다. 약간 때가 탄 반지 세 개와 다양한 모양의 귀걸이를, 작은 다리가 박혀 있는 반지 하나가 햇빛에 반짝인다. 서둘러 그것들을 주머니에 도로 넣는다.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본다. 남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수저를 쥐고 멍하니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밥을 먹고 있다. 밥을 씹는 남편을 가만히 응시하는데 불현듯 남편이 입을 연다. 우리 이사

가자. 너무 뜻밖의 말이라 나는 남편의 눈을 바라만 본다. 남편의 음성이 다시 귓속으로 흘러들어 온다. 이번 봄에는 우리 집 갖기로 했잖아.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입속 가득 밥 알을 집어 넣는다. 남편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다. 나는 별안간 소리를 지르고 싶다.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가냐고. 당신 주머니 속에 그 돈들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매일 밤 어떨가는 것이냐고. 입 속 가득 밥을 넣는다. 말을 삼키듯 꿀꺽 밥을 삼킨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밖에는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고 있다. 좁고 더러운 옥상이 바로 앞에 펼쳐져 있다.

낮은 석조건물 옥상 위에 자리 잡은 우리집. 군데군데 생채기가 나 석회가루를 흘리고 있는 우리 집은 마치 패잔병의 웅크린 뒷모습 같다. 옥상 깃머리에 남편이 보인다. 남편은 얇은 난간 위에 바짝 붙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남편의 발 아래로 불안하게 받치고 선 흙만 담긴 사각 화분이 보인다.

금방이라도 옥상 아래로 뛰어내릴 것만 같은 자세다. 남편의 왜소한 몸이 바람에 불안하게 흔들린다. 남편에게 다가간다.

여보 위험해. 왜 그만과 서 있어. 대답 대신 남편의 입술 사이로 쓰디쓴 담배 연기가 흘러 나온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남편 옆에 바짝 기대 서 우산을 씌워준다. 그리고 힘없이 처진 남편의 왼쪽 손을 꼭 잡는다. 굳은살이 박힌 남편의 손은 차갑다. 남편의 고개가 그제서야 돌아간다. 하얀 새치가 드문드문 돌아난 뺨뺨한 머리털과 살이 없어 더욱 두드러진 광대뼈, 나는 동특한 꼬 위로 자리 잡은 남편의 가는 눈을 들여다본다. 탁한 흰자 속에 까만 눈동자가 피로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제 우리집을 가질 수 있어. 남편의 입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이 번쩍인다. 그 순간적인 빛에 여자는 남자도 사그라들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진다.

운문장원

봄, 천둥

김대진 (예술대 문창1)

봄이 지난 자리

여자의 몸에 꽃이 피었다

발목이 푸른 꽃잎이

저만치 나뒹굴었다

봄은 헤드라이트를 먼도칼처럼 번득이며

검고 짙진 밤의 가죽을 찢었다

밤의 등판에 무성한 비둘기가

여자를 휘감고

탕겨져나간 새장 속

몇 장의 지폐가 날개를 달았다

꽃받침처럼 뒤집힌 치마가 붉게 꽃물들고

전속력의 몸이 여자를 관통한 찰나

커다란 노성이 들렸다고도 했으나

멀어지는 봄의 꼬리를 쫓을 새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가로등만이

굽이 나간 구두를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있었다

댓글의 난

기억에 남는 일본의 망언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댓글 달면 신신하지 않을 거 같아 참신한 거 없을까??

△가장 참아슬스러운 막말은 노광구로다의 "독도 표기, 국토에 대한 사랑 가르쳐주는 것"

△다른 얘기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망언이라는 단어가 뭘만해선 매이지 언론의 일반 기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란 걸 알 겁니다. 모 국회의원 망언이라든지, 부시 대통령 망언이라든지의 표현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죠. 심지어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해도 망언이란 표현은 참 조심스러운데, 오직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쓰이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독도는 일본땅? 독도는 다케시마?

△이치로의 망언 WBC때, "앞으로 30년간 상대팀(한국)이 일본에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확실하게 이겨주겠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 (5/26)	번석육개장(2000)/낙지덮밥(2200)/돈가스(2500)
화 (5/27)	돈갈비김치찌개(2000)/참치회덮밥(2000)/치즈돈가스(2500)
수 (5/28)	콩나물국밥(2000)/참치육수수육덮밥(2000)/햄박스테이크(3000)
목 (5/29)	쌍봉국(2000)/불고기덮밥(2200)/수제돈가스(3000)
금 (5/30)	부대찌개(2000)/제육김치볶음덮밥(2200)/치킨까스(2500)

상록원

월 (5/26)	푸꾸미제육볶음(2000)/날치알회덮밥(2200)/참치전골(2500)
화 (5/27)	갈치조림(2000)/브로커리치즈볶음밥(2000)/김치돈가스(2500)
수 (5/28)	김밥김치(2000)/멸무비빔밥(2000)/살랑탕(2500)
목 (5/29)	비에너블음(2000)/제육김치볶음덮밥(2200)/민두전골(2500)
금 (5/30)	장조림백반(2000)/토마토소스볶음밥(2000)/온두부찌개(2500)

아리수

월 (5/26)	햄사이드찌개(2000)/새싹참치팬비빔밥(2200)
화 (5/27)	어묵김치찌개(2000)/불고기덮밥(2200)
수 (5/28)	오징어덮밥(2200)/신채비빔밥(2000)
목 (5/29)	쌍봉국(2000)/제육김치볶음덮밥(2200)
금 (5/30)	쇠고기국밥(2000)/낙지콩나물비빔밥(2200)

촛불문화제로 본 집시법

집회! 어른들만, 그것도 힘들게만 하는 것?!

2002년 월드컵, 거리는 붉은 옷으로 넘쳐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거리에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구호를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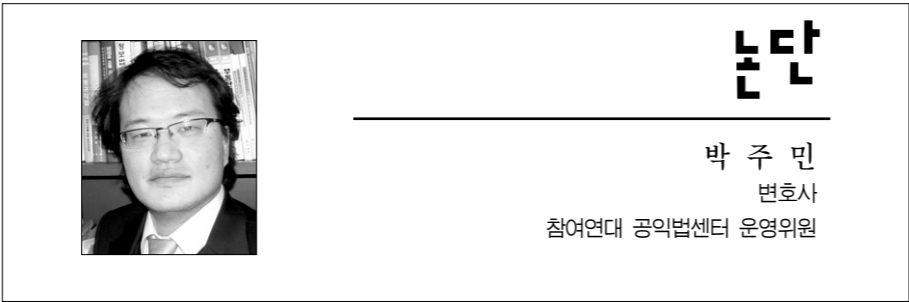
거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로 중고등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들의 의사대로, 자신들의 감정대로 거리에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때 어느 중앙일간지에서 '뭔가 이상하다. 어린 학생들이 모종의 세력에 의해 휩쓸리고 있다. 평상시 K리그를 바라! 관중도 없고 열광하기 그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축구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축구에 흥분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취지의 사실을 쓴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교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거리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면.....

붉은악마와 촛불집회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어린 학생들이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휩쓸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로 전교조를 들기도 하고 일부 사회단체를 거명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연예인들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한다.

이러한 언론들의 눈에는 2002년의 학생들과 지금의 학생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축구는 쉽지만, 무역은 어려우니 학생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나서서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그렇다면 언론들이 보는 학생들은 축구를



논단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보고 흥분하는 수준의 지적능력만을 갖춘 존재인가? 아니면 우려하는 언론이야말로 뭔가 의도가 있고, 휩쓸리고 하는 것인가? 많은 것이 의아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알기 어려울 뿐이다.

야간집회는 무조건 불법?

이런 논의가 촉발된 데는 '야간의 촛불집회'가 과연 불법집회냐' 하는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여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했을 때 자신들의 상식을 의심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상식으로 알기에는 불법집회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며 대중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평화적인 촛불집회 역시 불법집회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것이다. 내가 범법자가 되다니?! 그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위험적인, 그러나 위력적인

하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글을 써서 이제는 나조차 지겨운 이야기가 있다. 바로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허가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를 금지하고 있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집시법은 야간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바로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다. 여기에 거의 피답수준의 사실이 더해진다. 바로 집회를 다루는 집시법에 집회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의 입맛대로 어떤 것이든 집회로 단정할 수 있고, 최근의 촛불집회 역시 아무리 문화제라 해도 경찰이 집회라고 보는 순간 집회일 뿐이다.

이렇게 일단 경찰이 집회로 보는 이상 집회라고 등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불법이라는 딱지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법이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만 일반 국민들이 미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공권력은 함부로 행사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명확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법은 모두 위헌이다. 따라서 헌법 집시법은 이런 관점에서 위헌적이라고 할 것이다.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순간 그 법은 법질서 속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시법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척도

요즘 헌법 집시법과 현재 사회분위기를 주도하는 언론들이 그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지 새삼스레 생각해보게 된다. 혹시 정치적 문제, 아니 식생활이나 국민의 건강이라는 생활적 문제에 대해서조차 침묵하고, 조용한 사회.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드라이브를 거는 대로 움직이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 아이작 아사모프의 파이데이션이라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 그 소설에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해 가는 징후로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것을 들고 있었다.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사회는 조용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체하고, 퇴보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사회가 다른 사회제도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훨씬 편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고, 그렇게 표출된 의견들이 사회적 결정에 보탬이 되어 보다 현명하고, 보다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혹시 최근의 분위기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하는 이런 장점을 사장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시점에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새겨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주제넘은 잔소리일지는 몰라도 대학생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바로 당신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이다.

메아리

시기상조

▲ 서울대학교가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통한 학생선발시스템의 개혁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입학처장인 도리스 데이비스와의 협력체약 체결을 통해 현행 학생 선발방식, 평가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수능성적이나 내신 성적 등의 계량화된 점수가 아닌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함이다. 데이비스 처장은 미국 UC버클리대,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의 입학사정관을 활동하며 입학 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정책이 시동이 걸리면서 최근 대학개혁의 선두 주자로서 주목받는 대학은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와 우리대학일 것이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28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발표했다. 이는 학교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학과에 대해 다음해 입학정원을 줄이는 조정안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 비롯한 교수, 대학원생 등의 여러 학내 구성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이 조정안이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발표되었고, 그 평가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을 받고 있어서이다. 또한 사후에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면서 현재까지도 학내 반대 의견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 사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도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지난해부터 '능어촌 전형'과 같은 정원 외 인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해왔다. 그리고 올해는 외국인 학생특별전형에 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진단과 점검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학교의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은 지난 3월말에 개발을 완료했고, 대학당국은 올해 바로 모든 학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의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을 볼 때, 학내 곳

곳에 불은 반대 성명과 학생들의 시위로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 급변하는 무한경쟁사회에서 대학 역시 경쟁의 열의가 아니고, 사회적 수요에 따라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내의 구성원들 또한 학교의 개혁 의지를 부정하고 무조건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은 원한다. 의견수렴과 같은 기초적인 과정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데 과연 고객인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대학발전으로 나아가갈 수 있을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투명하고 상세히 밝혀진 가운데 제도가 효과적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

이승이 문화부장 thispaper@dongguk.edu

사설

로스쿨, '전면재심사' 해야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우리대학이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불허처분 소송'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을 요구한 로스쿨 관련 문서에 상당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원에 제출한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로스쿨 심사의 핵심회의였던 13회와 14회의 회의 자료가 아예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회의록 누락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회의라 판단되므로 진행됐고 그래서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지만, 이 같은 교과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대학에서도 사소한 위원회 회의조차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을 거쳐 보존처리한다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하물며 로스쿨 심사에 응한 40여 대학의 미래가 걸려 있는 법학교육위원회 회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해명은 공색하다 못해 참담하다. 또, 그래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학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다 못해 유지하기까지 하다. '모 대학에 정원을 많이 주면 모 대학이 빠진다'는 식의 회의내용은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알고 회의에 참석했는지 궁금해진다. 우리는 누락된 회의록의 추가 제출을 분명히 요구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심사의 부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로스쿨 일정을 전면 중지하고 재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애써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등의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진실이 밝혀진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학교 측도 이번 회의록 누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강력한 홍보와 대응이 필요하다. 학내 구성원들도 부당한 로스쿨 탈락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



Table with Dongguk University Press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website links.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특강 안내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여름방학 특강 안내

미술치료란, 매체를 경험하며 직업과정속에서 내면과 무의식을 탐색하고 내면적 갈등을 스스로 치유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동의 미술적 심리발달을 연구하여 나아가서는 노년기까지의 전 인간의 문제적 갈등을 예방, 치유하며 자력증진 준비합니다.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여름방학 특강 안내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 안내입니다. 주산, 암산, 수학을 배워 유익함과 초등교육 특기, 적성 교사, 각종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분,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 창업에 원하시는 분, 배워서 지식을 직접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 교육기관에 주산 암산 반 개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많은 입학의 기회를 바랍니다.

Human Color 단기특강 나의 기질과 능력은 무엇인가. 1. 강의 내용, 2. 과정특색, 3. 적용분야, 4. 접수기간, 5. 강의시간, 6. 수업료.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과정소개, 지원자격, 커리큘럼, 혜택사항.



1. 철거가 예정된 세운상가 현대아파트
2. 세운상가 옥상에서 바라본 종로
3.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로의 풍경
4. 우리학교 옥상에서 보이는 진양, 삼풍, 대림상가
5. 생활사전에 전시된 1980년대 여성지
6. 세운상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텔레비전

근대화의 추억, 세운상가를 찾다

세운상가가 꺼내 놓은 40세의 자기소개서

'세상의 기운이 모인다'는 뜻의 세운상가. 불도저 별명 지녔던 서울 시장과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건축단시 비난 봇물... 이제 역사의 기로에 섰다.

'다, 세운상가를 걸다' 는...

시민단체 문화우리에서 주최한 '다, 세운상가를 걸다' 가 오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근현대 도시경관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재조명 하는 이들이 지난 40여년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기록을 시작해 기록전을 열었다.

주 최 : 문화우리
 개방시간 : 오전 11시 - 오후 5시
 장 소 : 지하철 종로 37구역 2번 출구에서 3분 중요공원 건너편
 문 의 : 070 - 7563 - 6913,
 cafe.naver.com/sewoondocument

오늘은 세운상가를 따라 걸어 '세운상가를 걸다' 전시에 방문해 보자. 도심 녹지화 계획으로 철거 대상이 된 세운상가 현대아파트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된 근대화의 추억을 되짚는 현장 기록전 '세운상가를 걸다' 가 오는 2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시민단체 문화우리가 주관하며, 철거로 인해 이사를 한 현대아파트를 속속들이 뒤져 찾아낸 잔여 생활사 유물과 세운상가의 사진들을 전시한다. 철거가 이뤄지기 전, 처음이자 마지막의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운상가는 세상의 기운이 모인다는 뜻으로, 1968년 김수근의 설계와 대기업의 시공,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의 추진력으로 태어난 직선 1km에 이르는 세운, 대림, 삼풍, 진양상가 군을 통칭한다. 원래 이곳은 1930년대 경성시가지 계획법에 의해 필지가 형성됐다. 해방이후에는 해방촌이 되고 윤락가로 슬럼화 됐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세운상가가 지어지게 됐다.

세운상가는 최초의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조성됐고 한국 전자제품 산업의 기원이자 1970년대 최고급 아파트이며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또, 한국 최초로 중앙난방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지어진 지 10여년 만에 강남개발정책과 주위의 상권 발달로 그 빛을 잃어갔다. 세운상가에는 오늘날도 물건들이 오고가고 있지만 점점 근대화의 유물로만 남아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보였다.

세운상가는 우리학교 건물 옥상에서 중무로 방향으로 내려다보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일주 파악이 끝나면 건물만 따라가면 된다. 건축가 김수근은 당시 1층은 차도로만 사용하고 2층에 실내와 실내를 오르내리며 가는 공중 통행로인 '데크'를 설치했다. 이는 현재 공간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가장 쉽게 세운상가를 답사할 수 있는 길이 돼 주고 있다. 이제 탁 트인 옥상에서 이들의 기억과 흔적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자신을 안내하는 세운상가의 '데크'를 따라 가자.

step 1. 진양상가
 학교에서 내려오면 세운상가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건물이 진양상가다. 꽃가게와 애견용품, 그리고 집에 못한 학생들이 자주 찾는 필집방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건물이다. 그런데, 오래됐지만 깨끗한 정면모습을 비껴나가면 또 다른 모습이 굉장히 새삼스럽다. 창문마다 장식된 차양들은 때 묻고 바래 있고 건물 정면 방향에 붙비는 사람들과 비교해 놀랄만큼 조용하다.

step 2. 삼풍상가와 대림상가
 진양상가를 지나면 깨끗한 건물이 등장한다. 이 삼풍상가는 데크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세운상가의 건물들 중 유일하게 리노베이션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도로만 건너면 대림상가가 다시 진양상가와 유사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 옥상의 벽에 치장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70년대 이전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외벽 꾸미기 방식이라고 한다.

step 3. 세운상가
 대림상가와 세운상가가 마주보는 가운데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다. 그 가운데 '솨대'라는 조형물이 서 있고 밤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세운상가 본관의 입구 쪽에는 조형기가 판매가 특히 많았다. 본관의 내부는 한가운데를 비워 채광을 하는 서구에서 유행하던 건축양식이 적용되어 있었고 현대아파트의 옥상에는 정원도 마련돼 있다.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 쪽을 바라보면 종로에서 남산까지, 한 길로 연결하려면 건축가 김수근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step 4. ct, 세운상가를 걷다.

Cityscape trust. 시민단체 문화우리가 2006년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다. 그들은 멸실되어가는 '근현대 도시경관'을 '기록'이라는 과정으로 재조명 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그 셋째 이야기로 당시 매우 고급이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7호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전시가 진행되는 707호는 주인아주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나간, 40여년간 주거공간으로 쓰였던 28평의 가정집이다.

모든 물건을 빠짐없이 모으는 성격이었다는 할머니가 모아놓은 몇 십 년 치의 종이방은 이번 전시에 큰 도움이 됐다. 1003, 905, 810, 7207호에서 찾아낸 생활사 유물들은 입구 바로 앞의 식모방과 작은방을 합친 방에서 생활의 흔적을 보여주는 생활사전으로 구성됐다. 이 방의 물건들은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일본식 화장실에서는 세운상가의 24시간을 보여준다. 철거가 예정됐어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창고 자리에서는 세운상가 상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0년을 들여 볼 수 있다. 작은 방에서는 2005년 미술인회의가 주최한 세운상가 프로젝트 때 작업된 이현지 제작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재개발에 대한 상인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보여진다.

거실 벽면의 곳곳에는 22명의 자원 활동가들이 기록한 세운상가 곳곳의 사진이 전시되며 안방에서는 명에 자원 활동가로 참여한 배우 조민기와 개그맨 이병진의 사진이 전시된다. 세운상가를 다양한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다음달 25일에는 인사아트센터에서 세 번에 걸친 전시를 보완해 다시한번 전시회를 가질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step 5. 14층 옥상에서

전시를 둘러보고 나면 14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간판 때문에 복잡한 관문을 거치고 나면 종로 주변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특히 종로를 바라보면 세운상가가 세워졌을 당시 얼마나 조망권이 좋았는지 상상된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슬레이트지붕의 건물들이 뻗뻗하다. 세운상가와 함께 지난 4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옥상정리를 하며 이사할 준비를 분주히 하고 있던 1302호의 노부부는 삼십년간 이곳에 살아왔다고한다. "떠나기 싫어, 하지만 어찌겠어? 나라가 하는 일을"이라며 한숨을 쉰다.

"79가구 중에 현재 사무실까지 20여 가구만 남아 정리중이라는 현대아파트는 아래층의 상가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문화우리 연구개발팀 김아영 팀장은 "대부분 이사를 갔지만 상인들 중 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귀뻐 해줬다.

서울의 근대화를 화려하게 알린 세운상가, 하지만 그 급한 마음은 몇 십 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 지금 세운상가는, 서울은 그 여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는 앞뒤를 두루 둘러보는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세운상가가 말하고 있었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사진 = 이정훈 객원기자, 문화우리



동국가족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와 효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주신 동국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건강식품인 <동옥고>로 불철 피로하기 쉬운 어린이나 수험생, 노약자의 건강증진과 활력을 높게 하는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1kg/500g/300g 3종류가 있습니다.
 동국가족을 위한 특별할인(30~40%)적용.

천연인삼상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꿀로 만든.....

“동옥고”
 옛 한의서인 동의보감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천연물 재료를 자주 사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삼과 복령은 원기를 도와 소화기능을 돕고 폐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정을 생성 유지한다고 하였고, 지황은 혈액생성이 고루워짐에 따라 열의 발생을 억제하여 인정을 유지하고, 꿀은 풍부한 영양소로 소화기능을 증진시키며 통증을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천연물 재료 중 천마는 뇌질환계통 특히 두통, 중풍, 경기, 체매 등에 이용되어 왔으며, 오늘날 현대인에게 많은 두통 및 뇌면증이나 우울증상에도 좋다고 알려졌었다. 동옥고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천연물 재료의 최상품만을 엄선하여 제조하였습니다.

섭취량:
 섭취횟수는 아침저녁 2회로 나누어 동봉된 스푼으로 1~2스푼(15~30g 정도)을 먹습니다. 1회 섭취량(15~30g)을 계산해보면 꿀이 1g당 3.5kcal 이내이므로 21~42kcal 정도의 열량을 취하게 되므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섭취과정에서 유의 하실 점:
 동옥고에는 꿀(1회 분량당 21~42kcal)과 인삼이 들어 있어,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혈압이 높은 분은 섭취량을 줄여 섭취해야 된다고 하며, 담이나 혈압 조절에 이상 반응을 보이면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정상인들에게는 기재된 섭취방법에 따라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 할 때와 같이 동옥고를 섭취 할 때는 담배, 술, 커피를 줄이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장 활동이 부진한 사람은 찬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흡수력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1주일 전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
 섭취한 후에는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고, 제품에 물기나 침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 하십시오. 제품섭취는 가능한 공복에 하는 것이 좋고, 식전이나 식후에도 좋습니다.

동국가족을 위한
 한정특별 할인가

용량	판매정가	할인판매가
1kg	25만원	15만원
500g	15만원	9만원
300g	9만원	6만원

동국식품 부설 약용근자원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민 봉)
 문의 전화: 02)2265-915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http://mba.dongguk.edu

Double Chance, Dual Degree!

**GMAT 면제받고 텍사스대학 학위 취득/
 한국 MBA에 미국 MBA까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경쟁에서 앞서 갑니다.
 지금, '동국 비즈니스 스쿨'의 MBA 멤버가 되십시오.
 당신의 리더 찬스, 그리고 동국대학교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127년 전통의 명문대학인 텍사스주립대학 시스템의 일원

2007 미국 MBA평가 53위 (U.S. News)
 GMAT면제
 국내 수준의 저렴한 학비

동국대학교
 Dongguk Business School MBA 프로그램

General MBA : 최신경영이론과 실무지식 제공을 통한 전문경영인 양성
 Culture-Oriented MBA : 리더십과 팀워크, 스포츠마케팅, 문화산업경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화된 문화경영관리자 양성
 Entrepreneurship MBA : 기업창업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기업의 환경친화적경영을 극대화하는 기업경영능력 배양

2008 후기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 2008년 5월 13일 (화) ~ 6월 5일 (목)
 02-2260-8884~6